

전능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2-3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7월 30일 (토) 제 159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차악’ 선택해서라도 ‘최악’ 을 막아라!

미 언론, 보수복음주의 진영 트럼프 지지 이유 분석

‘최악’ 인 힐러리 낙마위해

공화당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선출했다. 이 부동산 재벌은 막말로 얼룩진 13개월간의 좌충우돌 끝에 16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공화당을 장악하는데 결국 성공했다.

트럼프는 19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퀸콘스 아레나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이튿날 행사에서 진행된 공개투표에서 대의원 과반인 1237명 이상을 확보해 당 대선후보가 됐다. 공화

당은 이날 부통령 후보로 마이클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원맨쇼로 끝난 '2016 공화당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선거운전 전략 즉 최악이 아닐 경우,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이 없으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트럼프를 지지해야만 하는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막말과 기행을 일삼지만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힐러리 후보보다는 그래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좌향으로 급진하고 있는 미국 사회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최악보다 나은 악이 바로 차악(次惡, Lesser Evil)이다.

최근 퓨리서치의 설문 조사 결과는 '2016 대선에서의 차악적인 요소를 입증한다 (Evangelicals Rally to Trump, Religious 'Nones' Back Clinton). 백인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유권자 중에서 무려 78%가 트럼프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퓨리서치의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투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백인 복음주의의 기독교인의 절반이 넘는 55%가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45%가 트럼프에게 표를 주는 결정이 '힐러리 클린턴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에게 표를 주되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표심은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찍겠다고 밝힌 유권자 가운데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30%에 불과하다는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단지 '클린턴 후보를 반대한다'는 복음주의 유권자가 45%를 차지하면서 기타 이유의 3%를 합쳐 결국 78%의 표가 트럼프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실제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트럼프 이외의 후보를 지지했던 공화당 소속



보수복음주의의 진영의 대선후보 트럼프 지지는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는 관점에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언론들은 보도했다.

복음주의의 교인들 중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유권자가 27%에 그쳤다. 그리고 다수인 61%는 '강하게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인 복음주의의 유권자들의 혼란스러운 표심은 이번 조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중 현시점에서 누구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지 '아주 어렵다'는 사람이 42%나 됐기 때문이다.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복음주의의 백인 공화당원의 44%가 트럼프 후보가 '전혀' 또는 '너무' 종교적이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백인 복음주의의 유권자들의 갈등은 보수주의의 진영 매거진 '카리스마'에 실린 기고(Should We Vote for the Lesser Evil of Donald Trump to Avoid the Greater Evil of Hillary Clinton?)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정권의 진보 정책들로 인해 미국 사회가 너무 좌경화되고 있기에, 정말 말도 안되는 후보인 트럼프를 지지해야하는 속사정(?)을 토로하고 있다.

<5면으로 계속>

관계만 집중하면, 복음에서 벗어난다!

리더십저널, 조나단 리먼 목사의 소그룹 운영에서 경계해야할 관계망 중심 소개

요즘 들어 소그룹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찾기가 오히려 드물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그룹의 예배나 중그룹의 각 사역팀으로 모이는 것 외에 소그룹 형태의 밀접한 관계망을 강조한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밀접한 관계 속에서 권면하고 세워가며,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범을 통해 배워가고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 밀접한 관계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워싱턴DC 캐피톨힐침례교회의 목사이며, 사우스이스턴침례신학교와 서던침례신학교의 강사이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역하는 나인 마크스(9Marks Ministries)의 편집장인 조나단 리먼(Jonathan Leeman) 목사는 그 부작용을 한마디로 '새로운 변영복음의 한 형태'라고 경고해준다.

관계와 목적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건 '포스트모던 변영복음' 순종과 거룩에 대한 강조 사라질수록 모임 정체성 의심해야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질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고 거룩하며 의로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 역시 모호해진다. 그러나 이 모호한 경계선은 또 다른 모호한 경계선, 즉 거룩한 창조주와 타락한 피조물 사이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과 맹신하는 사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물이다. 이것은 오늘날 '제도화'되고 '경계화' 된 지역교회에 주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초월하시는 하나님보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성자 예수보다 인간 예수를 선포하며, 거룩한 성경보다 인간적인 성경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는 점을 시사한다.

교회는 당연히 여러 사람을 만나 인맥을 넓혀가는 인맥관리의 장이 아니다. 사업을 위해, 정치를 위해, 인기를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의도를 곱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관계중심적 욕구가 소그룹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흔히 변영복음이라 하면 '순종과 거룩함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교회를 다니면) 축복받고 부유해질 것이며, 이것이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회에서 이러한 변영복음은 달콤한 사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쉽게 현혹된다. 그러나 변영복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역시 적극적으로 선포되는 편이기에 우리가 분별하기 쉬웠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니스 테어, IS의 새로운 공격 전략 패턴!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인터뷰 한국의 열... "탄남과 소통" 13면
---	---	---	--

HAPPY MINISTRY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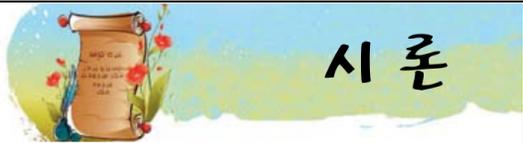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힘든 이민교회 현장에서 행복목회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교회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줄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는 행복목회가 대안입니다. 제자훈련, 성령운동, 셀을 통합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은 **행복목회**입니다.

대상 담임목사, 사모, 부교역자
정원 200명(선착순 등록)
등록비 1인 \$100 부부 \$150(교재 및 식사제공/숙박 개별)
참가문의 714-446-1000, 1004
은혜한인교회 사이트 http://www.gracemi.com
150 S. Brookhurst Dr., Fullerton, CA 92833

일시 2016.8.15(월) 10AM ~ 8.16(화) 1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주최:  행복목회아카데미 주관: 은혜한인교회 후원: OC 교회협의회, OC 목사회, 남가주 목사회, JAMA



시론

사슴나무골에서(32):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서 건물 밖에 있는 그리스 인물상의 무릎 위에는 거대한 책이 놓여 있고, 그 윗쪽을 받침대 정면에는 “과거를 공부하라 (Study the Past)”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귀는 이 곳을 지나는 많은 방문자들에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젓게 만들곤 합니다. 지극히 짧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참으로 타당하고 의미심장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논어의 위정편에 “은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서,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가르침을 통해 과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과거는 무수한 실패와 함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과거는 피해야 할 어리석음과 받아들여야 할 지혜의 저장소입니다. 배워야 할 교훈과 조심해야 할 경고가 그 속에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로 인한 결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같은 실수와 죄를 되풀이하며 악순환의 수레바퀴 속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성경은 과거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함으로써, 귀중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점에서 기억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나쁜 기억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며, 좋은 기억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게 하며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15:15)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임을, 하나님이 그들의 편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편118:6, 7)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압축시켜 놓으신 과거의 기록일 뿐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나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불변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되풀이되며 계속되어 왔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역사와 전통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분석 위에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건강하고 지속성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를 무조건 배척하고, 전통을 무시하고, 역사를 외면하면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마저도 상처와 고통의 과거까지도 끌어안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목회에서도 좋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 헌금이 출석교인 수가 교회를 지탱하는 반석이 되지 못함을 역사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의 참된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고전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tdspark@gmail.com

니스 테러, IS의 새로운 공격 전략 패턴!

허핑턴포스트, 영토 잃어가는 IS의 신 테러패턴 “내전” 확장 배경과 전망 보도

이슬람국가(IS)가 전세계 칼리프 제국을 선포한 2014년 6월 30일 이래 최초로, 드디어 전세가 IS에게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의 테러 공격 패턴은 IS가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서방에 대한 새로운 공격 전략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허핑턴포스트는 니스, 파리, 브뤼셀, 이스탄불, 올랜도, 샌버나디노 테러 행태는 바로 IS 등의 지하

디스트 조직이 앞으로 서방 사회와 어떻게 전쟁을 치를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망한다. 영토가 없고, 계속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IS는 ‘외로운 늑대’나 ‘불평분자’와 같은 사회 부적응주의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총이 아닌 다른 폭력으로 ‘내전’을 확장하는 패턴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고발한다(The Islamic State in Defeat: Is Nice the Future?).

악한 사제폭발물로 무장한 집단, 서방 국가들에 대한 폭력을 장려하는 IS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외로운 늑대’들의 민간인 공격들로 이뤄져 있다.

게다가 긴급 구조원을 즉각 다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 이라크에서의 테러 공격과는 달리, 유럽에서의 공격은 이 정도로 정교하지는 않았다. 브뤼셀에서 공격한 자들에게 비슷한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는 하다. 민간인들과 긴급 구조원들을 죽이기 위한 이중 공격은 IS가 유럽에서 해냈던 공격들에 비해 더 복잡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IS의 능력이 자라면서 민간인과 긴급 구조원을 노리는 이중 공격이 등장할 것이다.

IS의 패배는 어떤 모습일까? 과거의 전쟁들과는 다를 것이다. 패배한 세력의 대표들이 질서에 따라 시행하는 ‘항복 문서’는 없을 것이다. USS 미주리, 콩피에뉴 기차와 같은 항복 의식이 21세기 중동에는 없을 것이다. 평화회담도, 휴전 협정도, 승리 퍼레이드도 없을 것이다.



니스 테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프랑스 깃발이 놓여 있다. 2016년 7월 17일. ©Associated Press

지난 한 해 동안 IS는 영토의 1/4에서 1/3 정도를 잃었다.

이라크 정규군과 여러 시아파 무장 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군은 티크리트, 라마디, 팔루자를 탈환했으며, 이라크의 수니파 삼각지대의 중심인 안바르 지역의 주요 도시 중심지의 통제권을 손에 넣었다.

그보다 더 북쪽에서는 이라크와 쿠르드 세력이 모술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라크 군은 모술에서 남쪽으로 불과 80km 떨어진 카야라 공군기지를 장악했다. 이 기지는 군수 허브 및 모술 최종 공격을 위한 공군 기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바이지부터 하위자에 이르는 넓은 영역 역시

유럽내 입지 확장, 이라크 수니파 지원, 무분별 도시 폭력작전 국가보다는 소셜미디어 활용 전세계 30여 가맹단체 조성이 득

모술에서 분리되었다. 이 지역의 IS 무장대원들이 진지를 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동북부의 시리아 민주군(SDF)과 남서부의 시리아 정규군은 서서히 IS의 수도 라카로 진격하고 있다.

눈에 띄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IS의 패배는 아직 요원하다. 라카와 모술의 함락은 2017년이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승리가 확실한 것도 결코 아니다. 이라크의 시아파 파벌들 간의 정치적 합의는 쉽게 깨어질 수 있다. 쿠르드와 이라크 정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개입 역시 미지수로 남아있다.

시리아의 상황도 별로 나은 것이 없다. 자유 시리아군은 알레포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군에게 밀리고 있으며,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와 터키의 쿠르드족에게 계속 적대감을 품고 있어 효과적인 반(反) IS 연합을 만들려는 미국의 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터키의 쿠데타 시도가 IS와 싸우려는 에르도안의 의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IS가 핵심 영토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의 통제권을 잃었을 때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힌트는 늘어나고 있다.

첫째, IS는 유럽의 입지를 꾸준히 늘려왔다. 유럽의 IS 조직이 2014년에 비해 상당히 커졌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럽 정보국들은 유럽 내에 IS 하에서의 전투 경험이 있는 지하디스트가 1-2천 명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S는 유럽에 전투원 5천 명 이상을 잠입시켰으며, 유럽 대륙 전체에 ‘수십 개의 조직’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 정보국은 유럽 내에 IS의 지하디스트들과 헌신적인 지지자들이 2만 명 정도 있을 거라 추정한다.

둘째, IS는 유럽 내 범죄행위 가담을 확장시키고 있다. 한 예로 IS가 발칸 반도에서 서유럽으로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는데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는다. 체제 전복적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기와 대원들을 밀반입시키는데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 밀반입에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

셋째, IS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군대를 직접 공격했지만, 점점 더 초토화 방어태세와 공격적 내란 전술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전략이 가장 두드러지는 이라크에서, IS는 수니파가 다수인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의 거리 하나 하나에서마다 기나긴 싸움을 했다. 이라

크 군과 자신들의 점령 도시 양쪽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면서 이라크 군의 진격을 가능한 한 막으려는 의도였다.

그 결과, IS는 패배하면서도 도시를 재건에 수십억 달러가 들어갈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이라크 정부는 그럴 돈이 없고, 수니파 지역 재건에 돈을 쓰기는 꺼려한다. 그 결과, IS는 패배하면서도 이라크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해놓는 셈이며, 이라크 수니파 커뮤니티에서 앞으로도 지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IS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전략의 특징이었던 무분별한 도시 폭력으로 돌아갔다. 이제까지 유럽에서 IS의 작전은 5-10명의 무장대원, 자동화기와 조

IS가 현재 장악하고 있는 영토를 모두 빼앗는다 해도, IS의 패배를 보여줄 방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없을 거라는 의미이다. IS는 그저 국가가 없는 단체라는 상태에 적응하며 무언가 다른 것으로, 즉 국가 없는 정부로 변해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7월 14일 니스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은 IS가 진화하고 있는 형태, IS가 영토를 잃었을 때 취할 형태의 증상을 보여준다.

IS와 같은 무장 지하디스트 단체에게 있어, 실제 영토를 지배한다는 것은 꼭 축복만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영토가 있으면 유물, 석유 등 귀한 자원을 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1986-2016 30th Anniversary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관계만 집중하면, 복음에서 벗어난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소그룹이라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영복음은 더 교묘하게 파고든다. 새로운 변영복음은 순종과 거룩의 대체물로 축복과 부유함을 제시하지 않는다. 새로운 변영복음은 오히려 관계와 목적과 공동체를 순종과 거룩의 대체물로 내세우기에, '포스트모던 변영복음'이라 부를 수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축복과 부유함 자체를 악으로 말하지 않고, 종종 선의 부산물로 묘사하듯, 관계와 목적과 공동체 역시 그 자체가 악이 아니다.

예전만큼 가난하지 않은 우리는 이제 가난을 이기는 변영복음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부유해진 반면, 이제는 관계의 가난에 빠지고 갑성적 결핍에 빠진 우리는 관계의 결핍을 이기는 포스트모던 변영복

음에 쉽사리 빠져든다.

예수께서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우리 안에 세워가고자 하신 복음의 순종과 거룩함의 가치는 희석



되고 오직 관계성 그 자체, 공동체성과 함께한다는 목적성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다.

공동체주의는 교회만의 것이 아니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혼란 현상이다. 성경은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며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강조하나, 그 관계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순

종이요 우리의 거룩이다.

더 쉽고 편한 관계를 위해 교회의 '교인'이 되는 문턱이 낮아질수록,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기준에서 순종과 거룩에 대한 강조가 사

라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모임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러한 변질은 소그룹 현장에서 가장 쉽게 일어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관계위주의 사회였기에 가까울수록, 친밀할수록 한 모임이 세워지고 유지해야 할 원칙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결국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다. 우리의 소그룹, 혹시 포스트모던 변영복음에 빠져있진 않는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였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된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드러나는 관계로 나타난다. 우리의 소그룹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있는가?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소그룹은 교회의 소그룹이 아니라 그저 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포스트모던 소그룹이 아닌지 경계해야 할 것이다!

(2면에서 계속)

세금을 뜯고 학교, 모스크, 법원 등 사회생활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 다른 국가들이 인정하지도,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 해도 주권 국가라는 위신을 세울 수 있다.

반면 IS로서는 실제 국가를 지배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리하기도 하다. 먼저 보통의 지하디스트 단체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관리 기술이 요구된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발전소와 하수처리 시설을 돌려야 한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와야 하고,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 식량과 연료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게다가 국가를 운영하려면 방어를 해야 한다. 지하디스트 조직은 현대 군대의 공격 무기를 막는데 필요한 정도의 방어 능력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며, 상대가 초강대국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다. 트럭 폭탄으로 여러 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트럭을 활주로까지 몰고 가지 않는 이상 같은 방법으로 F-16을 상대할 수는 없다.

IS로서는 사실 국가를 지배할 필요가 없으며, 전세계에 걸친 칼리프 제국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잠시 미뤄놓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없는 편이 오히려 낫다. 통치하는 영역이 없으면 돈을 더 적게 벌겠지만, 돈을 들여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훨씬 줄어든다. 게다가 수익성이 더 좋은 범죄 활동으로 세를 늘려가면서, IS는 영토를 잃었을 때의 자금 손실을 벌충하고도 남는다.

영토를 잃으면 IS의 위신에는 손상이 가겠지만, 그것마저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피해는 아니다.

현재 IS의 '브랜드'는 확립됐다. 전 세계에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 서른 개 이상의 가맹단체가 있다.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해 쌓아올린 이 브랜드는 정말이지 최첨단이었다. 모든 브랜드가 그렇듯 IS 역시 브랜드를 지키고 확장해야 하지만, 2014년에 비해 지금은 실제 영토를 통제하는 것에 덜 의존하고



있다. 니스의 공격은 IS가 유럽으로 내란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준다.

첫째, 범인은 외로운 늑대였다. IS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지하디스트 무장대원 출신이 아니었다. IS가 모병한 것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러한 공격을 장려하는 것이 IS의 소셜 미디어 캠페인의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보국에서 공격 가능성의 검색을 쫓 수 있을 계획도, 출장도, 수단도 없다.

둘째, 범인이 딱히 독실한 무슬림이었거나 지하디즘에 빠져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그는 그저 부

적응자이자 기능장예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급진 지하디즘에서 찾은 잡범이었다. 즉 이것은 급진화된 무슬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슬람화된 급진자의 문제였다.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서방 전문가들은 서둘러 '사상의 종말'을 선언했다. 세속주의, 민주주의, 자

본주의가 이겼고 권위주의, 군사적 공산주의가 패배했다. 그러나 현대 21세기 사회의 기본인 세속주의, 민주주의, 평등,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반 서방사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형태를 바꾸고 스스로를 표현할 새로운 사상적 틀을 찾았을 뿐이었다.

이슬람 지하디즘의 확산을 1천 년 이상 유럽과 중동을 지배했던 기독교-이슬람의 라이벌 형태로 보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지하디스트 근본주의자들의 적은 기독교가 아니라 서방사회다. 적은 21세기의 현대적 삶을 규정하는 가치들, 즉 민주주의, 평등, 자유시장, 세속주의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서방 사회와 서방 가치를 거부했던 테러리스트 단체 다이렉트 액션, 바더

마인호프는 급진적 좌파 및 마시스트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현재 '반 서방'은 서방 사회에 대한 근본주의적 지하디스트의 비평에서 표현과 정당화를 찾는 예가 많았고 있다.

니스에서처럼, 최근 18개월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여러 테러 공격의 배경에 지하디스트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상대는 과격화된 무슬림이 아니라, 이슬람화된 범죄자들과 불평분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IS가 범죄 활동을 확장하고 유럽의 범죄적 지하 세계에 깊이 파고들수록, IS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테러리즘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니스에서 한 명이 운전했던 트럭이 파리에서 중무장한 사람 9명만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차량이 무기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말에 IS는 추종자들에게 차량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니스의 테러는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4 번째 사건이다. 폭력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현대의 편의물은 끝이 없다.

결론은 니스, 파리, 브뤼셀, 이스탄불, 올랜도, 샌버나디노의 일들은 IS 등의 지하디스트 조직이 앞으로 서방 사회와 어떻게 전쟁을 치를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IS가 꾸준히 밀려나고 있으며, 몇 년 안에 영토를 완전히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토는 점도 희소식이다. 영토가 없는 IS는 더 무서운 적일 수 있고, 현대 국가의 공격무기로는 막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반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들의 능력은 여전할 거라는 사실은 골치 아픈 문제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목사는 목회가 우선이다 (하)

저출산, 고령화 해법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대되자 노무현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정부 각 부처, 각 사회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때를 놓쳤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졌고 대안 찾기가 어려웠다. 필자는 기독교 대표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자는 국무총리의 제안을 따라 각 부처와 기관대표들이 이런 저런 의견들을 피력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조계종 대표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라는 총리의 말에 "저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결혼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총리는 "그러시면 천주교 대표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라고 하자 "저도 죄인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군요"라며 발언을 사양했다. "그러시면 기독교 대표이신 박 목사님께서 한 말씀하시지요"라는 총리의 말을 받아 "대책이랑이 보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라며 얘기를 시작했다.

신생아가 첫 외출로 교회에 나오는 날 축복기도(사전 신청서를 받고)를 했다. 미국교회의 헌악과 유사한 행사였다.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린 후 축복카드, 꽃다발, 필자가 직접 쓴 휘호액자에 금일 봉을 선물로 주곤 했다. 그리고 반드시 세 명까지 아이를 낳겠다는 다짐을 받고 부모에게 아이를 넘겨주곤 했다. 다섯 명의 아이를 낳게 되면 성지순례를 약속했다. 이런 일을 시작한 후로 신생아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했고, 첫 외출 축복기도 신청 수가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영아부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결혼식을 주례할 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성혼선포를 하기 전 반드시 물었다. "아이는 몇 명을 낳기로 했나요?" "한 명만 낳기로 했는데요." "안됩니다. 그러면 선편 안 합니다." "아직 의논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의논하십시오." 세 명을 낳겠다고 하면 성혼을 선편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했다. 이 얘기를 해서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내며 이 운동이야말로 교회가 말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입을 모은 적이 있었다.

고령화 사회도 문제지만 저출산 문제는 사회발전과 교회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일학교가 문 닫은 교회가 늘어나고 2030년이 되면 대학들도 문을 닫을 곳이 불어나게 된다. 교회 구성이 심각하게 풀이 되어 기현상을 낳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목회! 그것은 목회자가 서고 앉을 자리다. 서 있던 자리고 앉아 있던 자리가 정갈하고 맑출해야 한다. 목사에게 목회는 삶이고 비전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목회는 목사의 최우선이야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목표이며 것발이다. 그런데 한눈을 팔거나 다른 것을 넘겨다보면 일탈의 우를 범하게 된다. 왜 교회 목회는 제쳐두고 딴 곳을 기웃거리는가? 그들에게 권한다. "목회현장으로 돌아가시오. 목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회에 최우선순위를 두시오"라고.

목회는 어렵다. 그러나 보람이 넘친다. 인간의 영혼과 삶을 돌보고 이 끌고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총회장 임기가 끝난 어느 날 신문사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라는 편집국장의 물음에 "목회를 계속 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라는 질문에 "박종순 목사는 목회자였다. 평생 목회자로 사역하다가 목회를 내려놓았다는 평을 듣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필자는 목사였고 목회자였다. 필자에게도 어렵고 가파른 고개가 있었고 강이 있었지만 목회는 필자를 신바람 나게 했고, 보람찬 나날을 선사했고, 그리고 감사의 세월을 살게 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와 감격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목사는 목회가 우선이다.

iamcspark@hanmail.net

Senior Pastor

Description

The Korean Christian Church ("KCC") is seeking a Senior Pastor to serve as the spiritual leader of the church and to provide Jesus-centered and gospel-centric ministry. KCC is a non-denominational and congregational church located in Honolulu, Hawaii.

General Qualifications:

1. Accredited theological seminary graduate (Masters of Divinity)
2. 10 year of pastoral experience preferred
3. Able to minister to Korean and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members
4. Meet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1 Timothy 3:2-7

Desired Qualifications:

1. Conservative theological background
2. Bilingual in Korean and English
3. Able to work in the US

Credential and other documents

1. Resume
2. Cover Letter which includes an individual mission statement, statement of faith, and personal testimony
3. A copy of Masters of Divinity diploma and acopy of ordination certificate
4. Two recent audio/video sermons for KCC to keep (bi-lingual sermon preferred)
5. Two recommendation letters -sealed with signature and personal contact (1 professional;1 personal)

Miscellaneous

1. Submit application via E-mail or postal service. All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KCC is not responsible for lost or stolen document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e-mail Pastor Search Committee.
2. For those who pass paper screen, he/she may be requested additional documents and interviews.

Submission

1. Address:Attn: Pastor Search Committee
Korean Christian Church
1832 Liliha St. Honolulu, HI 96817 USA
2. E-mail: hi.kcc.ptc@gmail.com
3. Deadline: 10/01/2016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끝 간 데를 모르는 인간의 탐욕

우리는 지금 인간의 탐욕이 끝 간 데를 모르고 질주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는 온통 탐욕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탐욕 내지는 성욕적 탐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요즘 중국이 본국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무지한 우리 같은 사람이 보아도 고개를 가우뚱할 수밖에 없는 영역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2000년 전부터 자신

들의 영역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지중해 앞 바다는 모두 이탈리아가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논리가 먹혀들면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은 바로 자신들의 바로 코앞에 있는 생활 터전을 내주게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힘 있는 자가 우기게 되면 세상은 불편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크림반도의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그 넓은 요지를 뱅크 삼켜버리고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껏 대응할 것이 EU의 경제제재(?) 정도요, 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될 것입니다. 이 것이 약자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러시아의 가스프롬 가스 회사가 전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명 줄을 걸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러시아가 가스를 막아버린다면 구라파는 일시에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추위에 얼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에서 독립한 주변국들은 밥집을 자기 못하게 생겼습니다. 주변국들은 러시아 주민들이 많은데 크림 반도를 순식간에 삼켜버린 방법으로 합병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한 두 가지입니까? 이태리의 북부는 알프스 자락으로 구성된 정말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티롤(Tyrol) 지역입니다. 겨울철에는 스키로, 여름철에는 하이킹으로 아름다운 산을 찾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쪽 사람들의 언어가 독일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은 이산가족들로, 본래 그 지역은 오스트리아 땅입니다. 1차 대전이 패전함으로써 연방국이 그 땅을 빼앗아 이태리 국가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제입니까? 1차 대전이 전쟁이 끝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사들 같은데, 땅 욕심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태리뿐일까요? 영국은 더 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아르헨티나 앞 바다에 있는 포클랜드(Falkland) 섬을 수백 년 동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전쟁에서 항복한 이후 계속 협상을 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습니다. 아마도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영국은 천문학적 국방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스페인의 말라가를 다녀왔습니다. 말라가는 화가 피카소가 탄생한 곳으로 해변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말라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브롤터(Gibraltar)가 있습니다. 그 지브롤터는 놀랍게도 영국령입니다. 1700여 년에 스페인이 혼란스러울 때 스페인의 땅의 일부를 영국이 끝

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땅 만큼은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취하면 돌려줄 줄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감옥을 경험한 교수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감옥에서도 TV를 시청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등장하면 동정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저 처 죽일 놈” 한다고 합니다. 자신도 죄를 짓고 들어온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 아닐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조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주변국들이 난리입니다. 난리를 치기 전에 북한에서 핵을 없애도록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또한 주변국들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레이더 및 무기를 비축해놓고 사드는 안 된다고 하니 이 무슨 강도 같은 논리일까요? 거기에 놀아나는 정치가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아무튼 약자는 서러움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러시아가 나토를 겨냥하여 배치한 수

많은 핵을 우리 것이라고 넘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크림 반도를 순식간에 삼킬 때 보우한 수많은 핵으로 맞서겠다고 했으면 푸틴도 선부르게 나오지 않았을 테고요. 그런데 자국 땅에 배치된 핵을 돌려준 우크라이나 정치가들의 순진함 때문에 처절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페이얼하고 힘이 없을 때 개인이나 국가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태종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동 3억5천만으로 포위된 작은 이스라엘이 견제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100여기의 핵 때문이 아닐까요? 팩스 로마나(Paxromana)로 평화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로마군단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고, 인간은 부패한 탐욕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힘이 있는지요? 부패한 세상의 힘이 아닌 위대한 영적 힘 말입니다.

chiesadiroma@daum.net

푸 / 른 / 초 / 장

차군규 목사
(순복음 부전교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에 비례해서 감당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전파의 사명이다. 왜냐하면 복음전파야말로 시대와 상황이 변할지라도 성도가 행하여야 할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영혼 구원의 복음전파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궁극적인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으며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하시고 계신 일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복음전파, 곧 선교였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리스도인 삶의 최종목표가 된다.

1.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1)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애타게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친히 “너희 중 소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접하여 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2)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신다. 노아

반석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고 충성된 신앙고백을 드림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를 듣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들고 그들을 향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능력을 받고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복음전파는 앞서 인용한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동족의 전도가 선행되고 그 후에 타문화권을 향한 선교가 뒤따르게 됨을 보여준다.

2. 선교는 예수님의 최후 명령에 순종하는 것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선생을 닮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2)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을 목격했으므로 이 모든 일에 확신이 있었으며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느 민족에게든지 힘 닿는 대로 전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할 때, 전파자는 모든 국경과 인종, 사상과 체계 등에서 오는 편견을 초월하여 “가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셨기 때문이다.

3)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다.

(5면으로 계속)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20절)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오늘날 오리 세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악해서 주님의 심판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르러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노아시대의 방주가 감당했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가 구원의

1)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다.

주님께서 그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제자들에게 선교의 대상을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나아가 한다.

3)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세상으로 부터 불러내셔서 값없이 의롭다 칭해주셨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6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6년 9월 2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6년 9월 3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6년 9월 6일(화) - 8일(목)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는 시대
 약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지나면
 서, 세상은 점점 더 믿는 자들에게 신
 앙의 분명한 고백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
 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은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가운데 사도
 신경을 공동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에서도 마음에 간절함이 느껴진다. 주
 일 아침마다, 나의 믿는 바가 무엇이
 며 우리는 무엇을 함께 고백하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를
 한 목소리로 제창하는 것은 이 약한
 세대가운데 너무나 귀한 일이라 여겨
 진다.

‘이럴 줄 몰랐다?’
 지난 6월 미국장로교 제222차 총회
 가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서 열렸다.

가져올 것이라 예견했던 말인가? 이
 일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벌써, 뉴
 욱의 어느 미국교회가 교회 강대상에
 스님과 불교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이
 용하면서 설법을 행하던 아찔한 장면
 을 보며 탄식했던 기억이 났음은 전혀
 낯선 장면의 연결이 아닐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주신 나라와 백
 성과 왕권을 더욱 강화하여 큰 나라를
 이루고자, 그가 생각하는 태평성대를
 달성코자 한 사람 두 사람 정략결혼으
 로 궁전에 불러들여 평화조약을 맺을
 때, 당대에는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러
 나 그렇게 하나씩 돌씩 내어준 결과가
 무엇인가? 후에는 하나님이 세운 왕
 의 궁전에서 우상숭배가 범접하듯이
 이루어지는 그 비극을 성경이 보여주
 는 데, 왜 이것을 왜 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상 아담 하와
 로부터, 아브라함 다윗 등에 나타난

에서 순교했다는 식으로 변설함으로
 저들은 더 이상 영적지도자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
 도자의 문제는 지도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저들을 따르는 수많은 민초들
 에게 격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다. 지도자의 분별없음이 얼마나 해악
 인지지를 우리는 열왕기의 역사를 통
 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결국, 그러한 역사적 안목을 상실한
 지도자들의 불회개가 5년 뒤에 한국
 전쟁의 잔혹하고 피폐한 하나님의 심
 판이 도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보
 는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바가 없는데,
 그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 평양도성
 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김일성
 가문의 우상들이 초대형 사이즈로 세
 워져있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거룩
 함을 닮은 거룩이다.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본질의 구별 없이 거룩을 이루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조금 지나치게
 말해서, 사람밥에 개밥을 섞으면 그것
 은 개밥이지, 사람밥이고 나란히 먹을
 수 있는 사람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진리와 비진리를 혼용하면, 하나님의
 거룩의 진리가 상실되는 것이고, 결코
 진리를 보전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다. 다원주의는 섞어보자는 것이다. 다
 양성을 인정하므로, 더 우월한 진리를
 찾아서 인간에게 보편타당한 복리를
 누리보자는 것이지만 사실은 진리를
 거스르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진리의 구별된 거룩성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를 평화와 화해는
 불가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큰 전
 쟁은 유브라데 강 전쟁인지요,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인
 가요? 이것은 같은 것인지요, 아니면 무엇이 다른지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 전쟁인지요?
 -토론펀에서 이희은

A: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합니다. 계8:13절을
 읽어보면 넷째 나팔을 분 후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
 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을 것이라고
 3가지 화를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계시록 9장 1-11
 절에 나오는 영적 정신적 재앙인 황충의 해를 말합니
 다. 이 황충의 해는 각종 인본주의 악 사상들을 말합니
 다. 무신론, 진화론, 실용주의, 인권주의, 다원주의, 동성
 애 사상 등입니다.
 두 번째 화는 계9:13-21절에 나오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불어질 때 일어나는 유브라데강 전쟁입니다. 이
 것은 인류 1/3이 죽는 제3차 대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
 다. 유브라데강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것입니다.
 유브라데강 전쟁 양상을 보면 사람을 대량 살상하는 비

유브라데강 전쟁(계11:7)은 복음증거 끝 인간 대량살상
아마겟돈 전쟁(계9:11-21) 주님 재림 직전의 최종전쟁

대칭무기라 할 수 있는 핵이나 생화학 무기가 동원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브라데강 전쟁은 교회가 두 증
 인, 두 축대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끝날
 때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계11:7).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미온 물건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권을 잡은 자가 적
 그리스도로 등장하여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하여 세계
 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계13:7). 이후로 교회는 무서
 운 환난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화는 계16:1-21절에 나오는 7가지 대접 재앙
 입니다. 이 7가지 대접 재앙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유브라데강 전쟁은 다
 립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
 어나는 전쟁으로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
 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은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군대
 를 데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이한 검으로 치고
 포도 밭듯이 제압하고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됩니다(계
 19:11-21).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 산채로 유
 황불 못에 던지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강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전쟁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 전쟁은 계7:1-4절을
 보면 성령께서 144,000의 택한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
 지 땅 내 모퉁이의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가 전쟁의 바람
 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계7:3).

‘차악’ 선택해서라도 ‘최악’을 막아라!

(1면에서 계속)
 제임스 담슨 목사를 비롯한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 역
 시 ‘차선’으로 트럼프를 지지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복음주의
 자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Dobson Endorses Trump,
 While Evangelical Leaders Advise Voting for Lesser
 Evil).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힐러리 후보
 가 당선돼 미국을 더 손상시키기보다는 그나마 트럼프 후
 보가 당선돼,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안정시키기를 바라
 다”고, 담슨 목사는 말했다.

퓨리시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많은 복음주의 유권
 자들이 클린턴 대신 트럼프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이상적인 대통령임이라거나 신앙의 원칙을 공용할
 수 있는 후보로 여긴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분석했다.
 또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종교 유권자 및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번 대통령 후보에 대한 만족도는 밀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시치는 지난 1992년 빌 클린
 턴 민주당 후보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나선 대통령 선
 거 이후 올해 대선이 가장 저조한 후보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결론으로, 이 땅의 정치는 차악적(Lesser evil)인 요소가
 있다. 정치와 관련해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받아들이기 힘
 든 일들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차라리 현실 정치에 눈감
 아 바리는 것이 경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와 현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때문에 무시
 할 수 없다. 우리의 선택은 단지 크리스천이나 아니냐의 문
 제가 아니라, 정책적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느냐에 있
 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 전형인 ‘절대악보다는 차선’을 넘어선 크리
 스티언의 대응이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진리와 비진리가 혼용된 다원주의 시대를 살면서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16:15)

놀라운 것은 오전 11시에 성찬식을 겸
 한 개회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 2시부
 터 시작되는 전체 회의의 시작 때, 근
 래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사건과 무
 슬림에 의해 저질러진 테러사건의 희
 생자들을 추모하며 화해와 용서와 평
 화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초청된 포틀
 랜드 지역의 무슬림 종교지도자가 단
 상에 올라가 인사를 하기로 순서에 정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무슬림 지
 도자가 알라의 이름으로 그 단상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장로
 교에 소속된 한인 목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도 뒤에 들게 되었다. 그 사과의
 해명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럴 줄 몰랐다’는 것이
 다.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기도가 진행
 됨에 대해 자신들이 어찌할 방법을 몰
 랐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말을 새롭
 게 되새겨 본다. 과연 이럴 줄 몰랐을
 까? 그렇다. 인생은 유한하고 무능하
 고 무지하기때, 실수할 수 있고, 그래
 서 우리는 전적인 용서와 관용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용서와 이해의 관점에서 본
 다면 사실 우리는 더한 일을 한다 해도
 눈감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
 니겠는가?

인생의 많은 죄악들이 가진 죄의 전염
 성의 당연한 열매들이다. 이것을 알도
 록, 예견하도록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수롭지 못한 해프닝?

혹자는 말한다. 이것이 뭐 호들갑이
 나? 다같이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세
 상을 이루어가자는 것인데... 라고 말
 한다. 또한 이 미국교단은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교단인데, 그 은혜
 를 어떻게 잊을 수 있으며 버릴 수 있
 겠는가?라고 변설하기도 한다. 지도자
 의 이 같은 언급에 얼굴이 붉어진다.
 교류와 협력과 동역은 본인들이 하
 님 앞에서 판단할 문제이겠으나, 성경
 과 교회사와 특별히 한국교회사에 남
 겨진 지도자의 무지에 대한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기독교 전체 진영에 해
 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38년 제 27차 조선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의식의 하나로
 공식 결정한다. 이유라는 것이 해방
 후 저들의 변명을 추억해보면, 신사참
 배를 반대한 이들이나 찬성한 이들이
 나, 감옥 밖에서 교회를 지키며 고생
 한 이들과 감옥 안에서 순교를 각오하
 고 고생한 그들이나, 모두가 교회를
 위함이나 서로 관용하자는 것이다. 덮
 고 지나가자는 것이다. 용서와 관용을
 말함에 무슨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앞선 지도자의 분별력

훗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 해명하면 될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민중
 의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앞
 으로 7년 후에 있을 해방에 대한 역사
 적 안목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
 한 영적인 의식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7년 후에 해방을 맞이
 했을 때, 저들은 더 이상의 변설은 내
 려두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둔감하였
 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이켜야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감옥 안에서 순교한 것처럼,
 자신들은 보이는 교회를 위해 감옥 밖

던 그 도시가 이제는 가장 칠출같은
 암흑의 도성이 되지 않았는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평양
 에서 주일이면 가계 상점들이 문을
 닫고 찬송 부르며 예배하러 가던 바로
 그곳에 지금은 어떤 노래 소리가 들리
 고 있는가? 그럼에도 전쟁의 상처위
 에 반도의 한쪽을 남겨두시고 세계의
 가장 복음의 역동성이 넘치는 한국교
 회를 허락하심은 남은 자를 불도시고
 소망을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변
 치 않는 긍휼과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과 1938년

2016년 지금 이 시대에, 1938년 그
 때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연관
 하여 말하고 있는가? 참으로 귀한 복
 음을 우리 조선에 전해준 현 미국장로
 교회의 행태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
 이다. 저들은 과연 무슬림 지도자를
 단위에 세움으로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실로 기대했던 말
 인가? 더 나아가 가장 핫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한발자국 두
 발자국 계속해서 안방을 내어주고 성
 경적인 신앙고백과 멀어지는 상황 속
 에서도 여전히 관용과 이해를 말할 것
 이란 말인가?

필자에게 신사참배 결의와 최근의
 이 일에 동시적인 연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적지 않은 목회자들의 반응 때문
 이었다. 일반성도들의 경우는 더 할
 것이라 여겨진다. ‘무슨 문제가 되
 냐? 다같이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자
 는 것인데,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관용을 말한다. 그래서인
 지 공동총회장으로 선출된 이들 가운
 데 한 사람의 여성 지도자는 예수 그
 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라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에도
 달리 견해를 가진다는 소식을 언론매
 체를 통해 듣게 된다. 감수륙 집임가
 경으로 느껴짐은 필자에게만 유독 특
 별한 것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구별된 거룩함

다원주의를 급격히 수용하는 시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를 급격
 히 수용하는 시대를 앞으로 우리는 더
 격하게 살아갈 것이다. 특별히 세들
 의 시대는 율음과 그름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왔다면, 이
 제 우리 2세 아이들은 전적으로 다양
 성을 인정하는 것 속에서 진리를 분별
 하고 수용해야 하는 복잡한 시대를 직
 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기계문명의
 편리는 더욱 그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
 들어갈 것이다. 특별히 아이들의 교과
 서에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관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더 나아가
 사람과 짐승의 성적관계의 여러 경로
 에 대해서까지 기술하는 교과서를 받
 아보는 시대가 된다면, 이를 다양성속
 에서 포용을 요구받는다면, 정말 참된
 교회를 이루며 진리를 구하는 우리에
 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너무나 절실
 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특별히 이미 기독교 내부에서부터
 다원주의적인 사상에 의해 진리를 이
 해하려는 생각들이 편만해져가는 것
 을 볼 때 깨어 경성해야 할 때임을 의
 식하게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서
 12장2절을 말씀처럼 다른 어떤 것보
 다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함으로 이
 약한 세대를 분별지 아니하고 진리 안
 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자신의
 몸을 산제사(Living Sacrifice)로 드림
 으로 하나님께 흠향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극명
 하게 요구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제
 자들을 향한 말씀이 생각난다. “너희
 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16:15) 배
 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
 아게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마
 16:16)라는 신앙의 분명한 고백과 삶
 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davidnjon@yahoo.com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선교의 대상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온 전하 만민이
 다. 믿는 자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들이
 다. 그러므로 성도는 값없이 받은 구원
 의 은혜를 선교를 통해 미지의 세계에
 값없이 전함으로써 갚을 수 있다. 이렇
 게 성도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며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므로 말씀을 확
 실히 증거해 주신다.

3. 선교는 명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복음전파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느 성령의 사역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주의 성
 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
 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
 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
 였더라”(눅4:18-19)는 주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1)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남아있
 는 제자들을 염려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이 떠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진리
 의 성령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므
 로 걱정하지 말 것을 일러주셨다. 이처
 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
 교의 영이시며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예
 수님이 하시던 바로 그 일을 대신하시는
 영이시다.

2)성령은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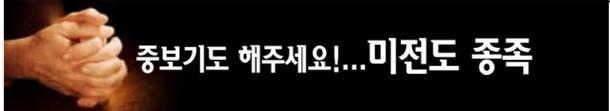
교회의 모든 활동은 선교활동이며 이
 는 모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복음
 에 빚진 자 의식을 갖게 하여 이를 전파
 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실 뿐 아니라 듣
 는 자를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
 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
 에서 성령은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최대의 원인이며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선교의 영이다.

3)성령은 능력을 갖고 계시다.

요한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
 개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
 하며 이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능력자이심을 나타낸다. 그러므

로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감동시키셔서 능력과 열심,
 또 회개하는 마음과 죄의 세력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인간의 모든 공동체는 제각기 그 존재
 목적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
 인 교회공동체는 선교 사명을 실천하
 는 데 그 존재 목적이 있다. 교회는 복음에
 빛진 자로서 값없이 받은 복음을 누군가
 에게 값없이 나눠주겠다는 의식과 이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는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 같은
 원리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끊임
 없이 중보 기도에 힘써야 하며 구체적인
 물질의 후원도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모
 두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삶에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함께 하
 기를 바란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동부 힌디(EASTERN HINDI)



인도는 인종, 언어, 종교적 사회 집단의 복합적 양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한 민족 그룹을 한정해 적절히 설명하기가 난해하다.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는 9억3천5백만의 인구가 거주한다. 전체적인 인구 밀도는 1평방마일 당 762명이다. 인도는 네 지역으로 분리하는데,

히말라야 지역, 북부 강-평원지역, 데칸고원 지역, 그리고 동부와 서부의 산악지역이다. 수없이 많은 지리학적 다양하고 계절적이나 지역적인 면에서 기온이 열대성에서 극한 온도까지 이른다. 3십8만의 동부 힌디인들은 북동부 마디아 프라데쉬(Madyha Pradesh)에 주로 위치한다. 그리고 마하라스트라(Maharashtra)와 우타르 프라데쉬(Utar Pradesh)에서 살고 있다. 그들의 언어는 인도아리아인(Ind-Aryan)어 계통의 한 언어를 사용한다. 그들의 삶의 모습과 문화는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삶의 모습 인도인구의 73%는 전원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수많은 농부들은 겨우 생존에 가까운 빈농인들이다. 농토는 매우 작고 흔히 불모없는 땅이다. 육축으로 특히 뿔 있는 가축, 들소, 말, 그리고 당나귀를 사육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힌두교의 영향으로 이러한 동물들은 식용이 되지 못하고 거의 부담스러운 짐승일 따름이다. 인도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중심이다. 많은 힌두사원이 있고 엄격한 카스트제도 하에 인도 전체사회에 영향을 고루 끼치고 있다. 카스트란 단어의 기초적인 의미는 혈통, 인종, 종류의 뜻을 갖고 있다. 인도사회는 계층별 카스트로 나뉜다. 그것은 같은 계층만이 결혼이 허용되는 동류혼례(endogamous)제도다. 카스트는 직업과 혈통 그리고 가문에 의해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카스트는 인도의 사회구조의 근본이며 인구의 아주 일부 부족을 제외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다. 동부의 힌두족의 카스트제도가 어떠한 관해 정확히 그리고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그들의 독특한 생활모습과 문화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동부 힌디족이 비하르의 농업인으로 살고 있으며, 옥수수, 벼, 사탕수수 그리고 밀을 재배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활양식도 이 지역 타부족들과 유사할 것이다. 좀더 많은 탐구를 해 동부 힌두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신앙

동부 힌디족은 98%가 힌두교도이며 근본적인 힌두교 관습과 전통을 따르고 있다. 힌두란 용어는 서기 1200년경 도입됐지만 분명하게 힌두종교가 무엇인지 밝히는 어렵다. 창시자도, 예언자도 교리적인 구조도 알 수 없고 신학보다는 삶의 방법이며 종교라기보다 철학이다. 서양의 대중적인 신앙과 상반되는 힌두교는 고전이 없고 신앙체제에 고정돼있다. 주체가 되는 관습과 실행 그리고 신앙은 수백 년대 변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힌두교도의 대다수는 초월적 존재를 믿고 있다. 일부는 모든 생명을 존중해 채식만 먹고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사원에 제물로 올려진 육식을 기본 좋게 먹으려 한다. 어떤 이들에게 그들의 종교는 매우 인격적이지만 어떤 이들은 비인격적이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는 "Brahman"(창조주), "Shiva"(파괴

자), "Vishnu"(보존자), "Shakti"(여신)들을 숭배하고, 또한 소신의 pantheon을 숭배해 소신들이 인간모습으로 환생(incarnations), 소신의 배우자와 자손들을 숭배한다. 환생(죽음과 삶의 지속적인 주기를 믿음은 힌두교 신앙의 아주 드물게 일치된 양상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의 가장 대중적인 언어를 동부 힌디족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이미 갖고 있다. 그러나 동부 힌디 기독교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힘과 용기를 실어 주기위해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뜨거운 종보기도와 선교지원 노력으로 동부 힌디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의 가장 대중적인 언어를 동부 힌디족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이미 갖고 있다. 그러나 동부 힌디 기독교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힘과 용기를 실어 주기위해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뜨거운 종보기도와 선교지원 노력으로 동부 힌디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性)을 중성(中性)으로 적은 여권발급 길 열려

미국에서 성(性)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으로 표기한 여권이 발급될 길이 열렸다. A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덴버지원의 브룩 잭슨 판사는 20일 콜로라도 주에 거주하는 퇴역 해군 데이비 집이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중성 표기 여권을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잭슨 판사는 미국 국무부에 중성 여권을 발급해 주라면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성 여권 발급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 명령이 나기 전에 중성으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해 주라는 판결이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호하게 태어난 남자로 자랐지만, 이후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intersex)'으로 확인됐다. 정부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신고서는 두 개의 성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권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잭슨 판사는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다"면서 "성 정체성이 과거처럼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에 정부가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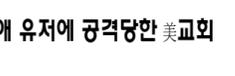
미국은 2010년부터는 의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여권에 있는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남성이나 여성 이외의 표기는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번에 잭슨 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중성 표기를 요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와 네덜, 뉴질랜드는 성을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국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성별을 말하도록 하고 있다. 오리건 주에서는 지난달에 자신의 성을 '제3의 성'으로 표기하도록 허용하는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도 남성도 아니라고 생각한 성전환 여성의 청원을 법원이 받아들여 'non-binary'로 표기하도록 했다.

미국은 2010년부터는 의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여권에 있는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남성이나 여성 이외의 표기는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번에 잭슨 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중성 표기를 요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와 네덜, 뉴질랜드는 성을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국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성별을 말하도록 하고 있다. 오리건 주에서는 지난달에 자신의 성을 '제3의 성'으로 표기하도록 허용하는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도 남성도 아니라고 생각한 성전환 여성의 청원을 법원이 받아들여 'non-binary'로 표기하도록 했다.

'포켓몬 go' 동성애 유서에 공격당한 美교회

'포켓몬 go'의 일부 사용자들과 캔자스주 웨스트브로침례교회 사이에 '사이버 전쟁'이 붙었다. 포켓몬 go는 닌텐도가 최근 출시한 증강현실 게임으로 미국과 유럽은 물론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게임 방법은 사용자가 휴대전화로 GPS를 연결해 실제 공원이나 역사적인 장소, 교회 등을 돌아다니며 포켓몬 캐릭터를 잡는 것이다. 이번 전쟁은 한 사용자가 포켓몬 go가 '체육관(GYM, 포켓몬이 시합을 벌이는 장소)'으로 지정한 웨스트브로침례교회에 주목하면서 발생했다. 극단적인 성향의 이 교회는 강력한 동성애 반대 운동으로 미 전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다. 20일 USA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의 대표적 슬로건인 '러브이즈러브(loveislove-원쪽 사진)'라는 별명을 가진 포켓몬 캐릭터 '삐삐'가 지난 11일 웨스트브로침례교회를 점령했다. 교회에 가상으로 설정된 포켓몬 go 체육관의 관장이 됐다는 의미다. 러브이즈러브의 트레이너(사용자)는 동성애자로 추정된다. 웨스트브로침례교회는 삐삐와 비슷하게 생긴 포켓몬 캐릭터 푸린으로 맞섰다. 푸린을 이용해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등 동성애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동영상을 제작해 트위터에 올렸다. 이 교회 장로인 스티븐 드레인은 "우리는 한 번 한 말을 지키려고 한다"라며 "동성애자의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핑크색 애니메이션 캐릭터(

푸린)로 교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웨스트브로침례교회의 대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찬반 논란으로 번졌다. 포켓몬 go 시합에 참가한 한 사용자는 "우리(동성애자)를 멸시하고 경멸한 이 교회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드레인은 "우리는 주의 은총 아래서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말해왔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말할 것이다"고 답했다. 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 러브이즈러브를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포켓몬 트레이너를 모집했다. 레벨이 높은 캐릭터를 구하면 전투를 거쳐 체육관 관장 자리를 뺏을 수 있다. 마침내 지난 18일 웨스트브로침례교회는 러브이즈러브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은 '러브=리부크(love=rebuke-오른쪽)'라는 별명의 캐릭터를 통해 체육관을 되찾았다고 공식 선언했다.



미국은 2010년부터는 의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여권에 있는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남성이나 여성 이외의 표기는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번에 잭슨 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중성 표기를 요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와 네덜, 뉴질랜드는 성을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국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성별을 말하도록 하고 있다. 오리건 주에서는 지난달에 자신의 성을 '제3의 성'으로 표기하도록 허용하는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도 남성도 아니라고 생각한 성전환 여성의 청원을 법원이 받아들여 'non-binary'로 표기하도록 했다.

터키 이슬람주의 '광풍' ... 복음의 확산에 '역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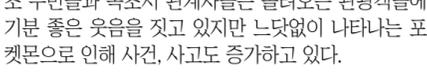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슬람화에 맞선 군부의 쿠데타와 실패,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대파 숙청과 비상 사태 선포 등이 이어지면서 터키 정국이 요동을 치고 있다. 서구 언론들은 종종 민주주의를 확실히 실현해온 터키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터키 내 복음의 진전은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터키 단기봉사나 비전트립은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훈태 박사대(선교학) 교수는 25일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터키는 이른바 술탄의 이슬람주의와 아타튀르크로 대변되는 세속주의 정체성이 대립하고 있어 불안정한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경제와 관광을 비롯한 봉사활동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향후 터키 정국이 다양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 소윤정(선교학) 교수는 "계엄령 체제라는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복음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사역자들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기도정보'(2010)에 따르면 터키의 복음주의 기독교는 1960년 10여명으로 출발해 최근까지 '조용한 성장'을 구가해왔다. 터키 내 시리아정교회 소속 기독교인은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초에는 터키 건국 이래 첫 정교회 건립을 승인 받았다. 이슬람주의가 득세한다면 터키 내 복음의 개화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김복권)은 이날 터키 교민을 위한 '비상사태시 위기 대처 매뉴얼'을 발표하고 "개인이나 가정, 그룹 단위로 공관의 안내를 따라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위기관리재단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외국인으로서 돌출 행위를 삼가야 한다"며 "당분간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지 거주자들은 이동시 동선을 가족에게 공지할 것, 비상연락망을 통해 실종 여부를 확인할 것, 납치나 갈취·강도 행각에 유의할 것, 거주지나 사역지 보안을 철저히 지킬 것, 가급적 낮 시간에 이동할 것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진대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은 "교민들은 위기관리 대처의 3원칙만이라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며 "현지 주민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조용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위기관리 대처의 3원칙이란 '깨어 있으라(Be alert)' '예측하기 어렵게 하라(Be unpredictable)' '눈에 띄지 않게 하라(Keep low profile)' 등이다. 김 사무총장은 또 "단기봉사팀 운영도 유의해야 한다. 지금은 터키 방문을 자제할 때"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최근 3개의 터키 단기봉사팀 일정이 취소됐고 8월과 9월에 예정됐던 다른 팀의 계획 역시 전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켓몬 go' 가 뭐라고...시민들 안전 위협 '심각'

'포켓몬 go'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포켓몬 go'를 하던 10대 청소년 2명이 도둑으로 오해 받아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뉴질랜드 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받은 중국인 남성 유저는 피카츄(포켓몬스터 캐릭터의 일종)를 잡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구취소에 수감되는 일도 있었다. 또 '포켓몬 go'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내 유저 중 한명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떠나요~ 포켓몬 잡으러"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호주 시드니에서 멤버를 행 비행기 티켓 사진을 올렸다. 한국은 강연도 속속 한 곳에서만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속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속초행 버스 티켓은 매진 상태이며,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속초 주민들과 속초시 관계자들은 몰려오는 관광객들에 기본 좋은 웃음을 짓고 있지만 느닷없이 나타나는 포켓몬으로 인해 사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UMC 첫 동성애자 감독 선출

연합감리교(UMC)가 동성애자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UMC 공보부 보도에 따르면 "동성애자인 카렌 올리벤토(Karen Oliveto)목사가 지난 16일 아리조나 주의 파라다이스밸리교회에서 열린 감독안수식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올리벤토 감독은 중북부, 동북부, 중남부, 동남부, 서부 지역회를 통해 총 15명의 신임 감독이 탄생된 가운데 서부지역총회(Western Jurisdictional Conference)에서 당선된 감독 중 한명으로서 17년 전 고교캠프 상담사로 사역할 당시 만난 로빈이란 여성과 약 2년 전 결혼해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당선에 결정되는 순간 올리벤토는 "저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 덕분이다. 어느 누가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오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져 다가갔다"고 말했다. 올리벤토 감독의 안수를 계기로 향후 UMC내 동성애에 관한 갈등이 보다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수식 전날인 15일 저녁, 중남부지역총대들은 동성애·레즈비언을 교회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지를 사법위원회에 상정하는 문제를 109대 84로 통과시켰다. 사법위원회는 교회법과 실행의 적법성을 심의하는 최고 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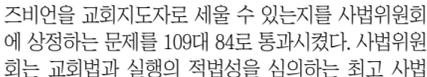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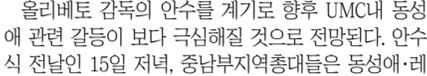
미국은 2010년부터는 의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여권에 있는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남성이나 여성 이외의 표기는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번에 잭슨 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중성 표기를 요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와 네덜, 뉴질랜드는 성을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국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성별을 말하도록 하고 있다. 오리건 주에서는 지난달에 자신의 성을 '제3의 성'으로 표기하도록 허용하는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도 남성도 아니라고 생각한 성전환 여성의 청원을 법원이 받아들여 'non-binary'로 표기하도록 했다.

대북제재 강화에 북한 내 구호활동 '발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금융 기관이 북한 송금을 거부해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줄이 막히고, 중국 세관에서는 북한으로의 구호물자 수송이 지연 또는 차단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의 한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는 "의약품, 위생 장비 등 상품 수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북한에 물건이 일부 남아있지만 당분간 북한 내부로 긴급 구호물자를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물 교환하는 수질정화제의 경우 약품이 많이 든 염소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중국 세관에 대량으로 몰수됐다. 결국 진단 실험에 필요한 전기 공급용 태양열 패널도 '균용 등급'으로 지정돼 반입이 금지돼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등을 채택했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제재 대상에서 빠진 인도주의 지원 활동도 타격을 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가 결의된 3일 오전 중국 라오닝성 단둥 압록강대교 인근에서 중국 상인들이 기념품을 북한 모조 지폐를 들여보내고 있다. 단둥의 중국 각 은행 창구에서 만난 은행 관계자들은 북한 은행들과 달리, 인민폐(위안화) 등 모든 화폐를 통한 거래를 중단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은행이나 운송업체 등 민간 업체들이 북한 내 구호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산하 기관 5곳과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 비정부단체 4곳이 북한에서 활동 중이다. 유엔 본부는 북한 내 구호단체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파란 하크 유엔 대변인은 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승인 후 러시아 국적 은행에 북한 송금을 취급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미국 국무부도 유엔에 이러한 최근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인구 2천490만 명 중 70%가량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약 105만명이 영양실조 상태다.

이벤트 佛 성당서 인질극...신부 1명 숨져

프랑스의 한 성당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인질극을 벌여 80대 신부가 숨졌다. 영국 BBC방송은 26일 프랑스 북부지역 센 마리팀의 생데티엔 뒤 루브레 지역 한 성당에 미사 중 괴한 2명이 침입해 인질극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오전 9시43분 아침미사에 들어타던 경찰들은 신부와 수녀 2명, 신도 2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기동대 BRI와 대치하다 사살됐다. 이 과정에서 자크 하벨(84) 신부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숨졌고 다른 인질 한 명도 크게 다쳐 생사 기로에 놓여 있다고 BBC는 전했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IS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사건 직후 현장을 찾아 "IS에 충성을 맹세한 범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누구도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다.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한 IS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괴한 중 한 명은 이 지역에 살면서 지난해 IS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행을 시도했다가 터키 국경에서 붙잡혀 감옥에 갇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는 전자발찌를 차고 집에서 생활했다. IS 연계매체인 아마크 통신도 사건 직후 "두 전사가 성당 테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IS는 성당 등 종교시설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명을 발표하고 "끔찍한 폭력과 잔인한 살인이 신성한 장소에서 벌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IS에 의한 도심 테러가 발생해 130명이 희생된 뒤 지난 7월 14일 혁명기념일에 남부 니스 지역에서 트럭 테러로 84명이 숨졌다. 이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극도의 테러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가 계속 유지 중이다.



터키 이슬람주의 '광풍' ... 복음의 확산에 '역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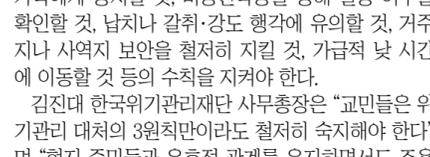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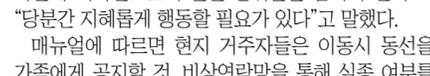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슬람화에 맞선 군부의 쿠데타와 실패,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대파 숙청과 비상 사태 선포 등이 이어지면서 터키 정국이 요동을 치고 있다. 서구 언론들은 종종 민주주의를 확실히 실현해온 터키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터키 내 복음의 진전은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터키 단기봉사나 비전트립은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훈태 박사대(선교학) 교수는 25일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터키는 이른바 술탄의 이슬람주의와 아타튀르크로 대변되는 세속주의 정체성이 대립하고 있어 불안정한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경제와 관광을 비롯한 봉사활동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향후 터키 정국이 다양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 소윤정(선교학) 교수는 "계엄령 체제라는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복음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사역자들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기도정보'(2010)에 따르면 터키의 복음주의 기독교는 1960년 10여명으로 출발해 최근까지 '조용한 성장'을 구가해왔다. 터키 내 시리아정교회 소속 기독교인은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초에는 터키 건국 이래 첫 정교회 건립을 승인 받았다. 이슬람주의가 득세한다면 터키 내 복음의 개화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김복권)은 이날 터키 교민을 위한 '비상사태시 위기 대처 매뉴얼'을 발표하고 "개인이나 가정, 그룹 단위로 공관의 안내를 따라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위기관리재단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외국인으로서 돌출 행위를 삼가야 한다"며 "당분간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지 거주자들은 이동시 동선을 가족에게 공지할 것, 비상연락망을 통해 실종 여부를 확인할 것, 납치나 갈취·강도 행각에 유의할 것, 거주지나 사역지 보안을 철저히 지킬 것, 가급적 낮 시간에 이동할 것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진대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은 "교민들은 위기관리 대처의 3원칙만이라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며 "현지 주민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조용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위기관리 대처의 3원칙이란 '깨어 있으라(Be alert)' '예측하기 어렵게 하라(Be unpredictable)' '눈에 띄지 않게 하라(Keep low profile)' 등이다. 김 사무총장은 또 "단기봉사팀 운영도 유의해야 한다. 지금은 터키 방문을 자제할 때"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최근 3개의 터키 단기봉사팀 일정이 취소됐고 8월과 9월에 예정됐던 다른 팀의 계획 역시 전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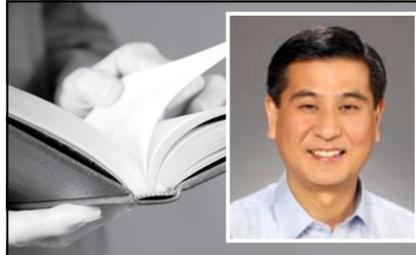
대북제재 강화에 북한 내 구호활동 '발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금융 기관이 북한 송금을 거부해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줄이 막히고, 중국 세관에서는 북한으로의 구호물자 수송이 지연 또는 차단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의 한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는 "의약품, 위생 장비 등 상품 수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북한에 물건이 일부 남아있지만 당분간 북한 내부로 긴급 구호물자를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물 교환하는 수질정화제의 경우 약품이 많이 든 염소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중국 세관에 대량으로 몰수됐다. 결국 진단 실험에 필요한 전기 공급용 태양열 패널도 '균용 등급'으로 지정돼 반입이 금지돼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등을 채택했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제재 대상에서 빠진 인도주의 지원 활동도 타격을 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가 결의된 3일 오전 중국 라오닝성 단둥 압록강대교 인근에서 중국 상인들이 기념품을 북한 모조 지폐를 들여보내고 있다. 단둥의 중국 각 은행 창구에서 만난 은행 관계자들은 북한 은행들과 달리, 인민폐(위안화) 등 모든 화폐를 통한 거래를 중단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은행이나 운송업체 등 민간 업체들이 북한 내 구호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산하 기관 5곳과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 비정부단체 4곳이 북한에서 활동 중이다. 유엔 본부는 북한 내 구호단체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파란 하크 유엔 대변인은 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승인 후 러시아 국적 은행에 북한 송금을 취급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미국 국무부도 유엔에 이러한 최근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인구 2천490만 명 중 70%가량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약 105만명이 영양실조 상태다.

이벤트 佛 성당서 인질극...신부 1명 숨져

프랑스의 한 성당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인질극을 벌여 80대 신부가 숨졌다. 영국 BBC방송은 26일 프랑스 북부지역 센 마리팀의 생데티엔 뒤 루브레 지역 한 성당에 미사 중 괴한 2명이 침입해 인질극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오전 9시43분 아침미사에 들어타던 경찰들은 신부와 수녀 2명, 신도 2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기동대 BRI와 대치하다 사살됐다. 이 과정에서 자크 하벨(84) 신부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숨졌고 다른 인질 한 명도 크게 다쳐 생사 기로에 놓여 있다고 BBC는 전했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IS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사건 직후 현장을 찾아 "IS에 충성을 맹세한 범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누구도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다.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한 IS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괴한 중 한 명은 이 지역에 살면서 지난해 IS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행을 시도했다가 터키 국경에서 붙잡혀 감옥에 갇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는 전자발찌를 차고 집에서 생활했다. IS 연계매체인 아마크 통신도 사건 직후 "두 전사가 성당 테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IS는 성당 등 종교시설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명을 발표하고 "끔찍한 폭력과 잔인한 살인이 신성한 장소에서 벌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IS에 의한 도심 테러가 발생해 130명이 희생된 뒤 지난 7월 14일 혁명기념일에 남부 니스 지역에서 트럭 테러로 84명이 숨졌다. 이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극도의 테러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가 계속 유지 중이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63)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신앙의 자유와 경건 (4)

한국교회는 뜨거운 기도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원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다. 주로 기도원이 위치한 곳이 산이기에, '산(山)기도'라고도 부른다. 특별한 기도제목이 생기면 개인 또는 단체로 산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철야를 한 후,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일이 빈번했다. 중병에 걸린 성도들은 아예 기도원 처소에서 상주하며 기도에 전념하기도 하였다. "소나무를 몇 그루 뽑았다"라는 재미있는 말도 이런 상황에서 생긴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소위 말씀을 중시하는 신앙이 소개되면서, 교회에서 뜨거운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 특정한 교파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현대교회는 개인의 성향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깨진 신앙을 수용하고 있다.

후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그가 동방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특히 안디옥 근방에 있는 사막을 방문한 후에 그의 신앙노선이 크게 달라졌다. 광야에서 독거하던 수도사들의 삶을 접하게 된 것이다.

제품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고

신에 대한 갈증을 지녔던 것이다. 당시 수도원의 산실이었던 이집트를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결국 마지막 여생을 베들레헴에 있던 자신의 수도원에서 마쳤다. 제품은 학문과 경건의 조화, 또는 기도와 말씀의 균형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 후대에 보여준 좋은 예가 되었다.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다. 동방

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안토니는 금욕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이다.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생명으로 삼았기에 영적전쟁에서 마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수도사였다.

제품의 "바울의 생애"와 비교하자면, 아타나시우스의 "안토니의 생애"는 매우 길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안토니가 기도에 전

대락 세 가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첫째는, 계속 홀로 거주하면서 수도에 전념한 것이었다. 둘째는, 홀로 거주하다가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를 드린 후에 다시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셋째는,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다.

제품의 "바울의 생애"는 최초의 수도사 바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시작에 등장하는 인물은 안토니이다. 제품의 관심은 바울로부터 안토니로 이어지는 수도사의 전통이다. 바울은 그 당시 엘리야와 요한을 닮기 위해 광야로 나간 많은 수도사의 삶을 시작한 인물이라면, 안토니는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수도사이다.

의 수도사들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상황 속에서,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주에서 수도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신의 경건에 집중할 수 있을 모색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그 후부터였다. 공동체가 지닌 성격과 지향하는 목표가 잘못 설정될 때, 말씀과 기도의 조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행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2) 성경이 보인다 - 마태복음 26:36-46, 요한복음 9:31, 갈라디아서 4:6, 디모데전서 4:5

신앙인에게 기도는 생명과도 같다. 기도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지닌 성도에게는 특권으로, 그렇지 않은 성도에게는 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한 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였고, 기도의 힘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훌륭하게 이루셨다. 우리의 기도생활은 결코 그리스도의 기도생활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기도는 경건한 삶의 원동력이었다. 기도 시간에 무엇을 구하고 얻는 사무적인 일과 비교가 되지 않는 소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이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다. 그 분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다. 아버지께 나의 현 상태를 알리고, 자신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기도가 경건생활의 필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가능한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다. 기도를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면 다시 살려야 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견고한 평안의 줄이다.

covenantcho@yahoo.com

학문과 경건, 기도와 말씀의 균형 맞춰 경건한 삶 원동력 유지 공동체 성격과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말씀과 기도의 조화 깨져

독한 곳을 찾은 그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최초의 수도사의 삶을 서술한 "바울의 생애"라는 짧은 작품을 남겼다. 사도 바울이 아닌, 341년에 사망한 수도사를 가리킨다. 또한 제품은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6-373)가 저술한 "안토니의 생애"를 라틴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만일 바울이 최초의 수도사라면, 안토니(Anthony, 251-356)는 바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본격적인 수도사의 전통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수련을 하던 인물들을 모아 수도원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나아가서 제품은 수도생활의 창시자인 파코미우스(Pachomius, 292-348)가 제정한 규율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제품은 당대에 뛰어난 학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을 중요시 한 것이다. 학문성이 뛰어난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삶을 드리는 헌

의 정서에 익숙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정립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정치적 힘을 얻어 아타나시우스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가 꾸며졌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신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직을 맡았던 그는, 이미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 지도자 및 성도들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쌓아두었다. 특히 파코미우스를 포함하여 이집트의 수도사들과 가까이 지냈다. 356년 황제의 군대가 예배를 인도하던 아타나시우스를 제거하기 위해 교회를 습격하여 여러 성도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집트 사막에 있는 수도사에게로 장시간 피신하기도 하였다.

수도사들과 수도원에 대하여 호의를 지녔던 아타나시우스는 "안토니의 생애"를 저술하였다. 안토니라는 한 개인의 경건한 삶이 어떠한지를 널리 알리려는 구

념하였던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거침없이 증거 한다. 그가 귀신들린 사람을 내쫓는 일, 병자를 고친 일, 환상을 본 일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였다.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를 신비주의적 인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의 성향은 향후 동방종교의 특징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 개인에서 신앙공동체로

초기에 광야를 찾은 수도사의 삶의 뿌리는 구약성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의 통하여 얻은 유익을 얻으려 하였다. 다윗과 같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광야에서 영적 성장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였다.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눈 것도 좋은 교훈으로 삼았다.

수도사들은 초기에 개인적으로 활동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안토니에게 가르친 경건할 삶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결국 수도사들의 초점이 기도 생활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광야를 찾았던 수도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첫 번 모습에서 세 번째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유는 분명하다. 독거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식주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 고독과 싸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삶을 선호하였다. 공동체를 통해서 유익이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 함께 모여서 살면서도 개인의 경건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어갔던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초창기에는 개인의 경건을 위해 공동체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마음을 합체한 수도사들이 모여 수도원이 세워졌다.

파코미우스는 수도사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였다. 많은 수

하는 것이다. 전도는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교인들이 길에서 하는 것이고, 설교는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전도와 설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성경에서 '전도'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케리그마'(kerygma)이다. 왕이 조서를 공포하면 그것을 지방마다 다니면서 선포한다. 그것을 케리그마라고 부른다. 이런 케리그마를 우리 성경에서는 '전도'로 번역하였고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설교'(preaching)로 번역하였다. 새번역 성경에서도 케리그마를 '설교'로 번역할 곳이 4군데라 있다(눅7:29; 롬2:21; 고전1:21, 2:4). 이렇게 성경에서는 전도와 설교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전도나 설교나 사용하는 내용은 다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jinhlee1004@yahoo.com

그게 그런 뜻이었어?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43)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성경에서는 '전도'와 '설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개역성경에는 '설교'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영어성경 KJV에는 'preaching'이라는 단어가 47회나 나온다. NIV에는 39회 나온다. 어떻게 된 것인가?

"심판 때에 니스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나,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눅11:32).

"The men of Nineve shall rise up in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shall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s; and, behold, a greater than Jonas is here"(KJV).

우리 성경에는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설교'로 되어 있다. 우리 성경에는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스웨 사람들이 회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요나가 설교해서 그들이 회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1:21).

전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다.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전철역에서 피를 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전도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다. 전도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혼란이 생기게 된다.

"For after that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by wisdom knew not God, it pleased God by the foolishness of preaching to save them that believe"(KJV).

새번역도 영어 성경처럼 번역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이 구절은 전

도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 설교에 관한 구절이다. 전도의 능력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 설교의 능력에 관한 구절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다. 설교를 좀 못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혼란스럽다. 뭐가 맞는 것인가? 다음 구절도 똑같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고전2:4, 개정).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 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새번역).

전도와 설교는 다르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설교는 대개의 경우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회교로 인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설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p>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월): 오전 7:00 주일 2부예배(월): 오전 8:15 주일오전예배(월):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1:30 중동지역예배: 오전 10:45(월-토) 유지, 유년, 노부: 오전 10:00</p>	<p>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오전예배: 오전 10:45 토요일예배: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양예배: 오전 10:45 중, 고동맹예배: 오전 10:45</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오전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안다독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p>	<p>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1부예배: 오후 4: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계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오전예배: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p>	<p>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 오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토)</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영어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리더십 코멘터리 (22)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중독에 빠진 리더

좌절감과 중독의 시대

최근에 회사나 교회, 선교지 등에서 큰 기쁨을 맛보았는가? 리더는 승리 이후에 좌절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좌절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몸과 마음이 지쳤기 때문이고, 둘째는,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좌절의 본질과 이유를 점검해 보는 것이 더 깊은 실패를 예방하는 첩경이다. 일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중독을 의미하는 워커홀릭(Workaholic)은 '일을 해야 살맛이 나는 중후군'으로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 최근 뉴스에는 '포켓몬 GO'를 즐기는 마니아(mania)들의 이야기로 화제이다. 이른바 스마트 폰 중독에 빠져 매일을 보내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약물 중독에 빠져 실패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

리더의 좌절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부터 온다. 좌절이란 일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아무 일도 안하는 사람은 좌절이 무엇인지 모른다. 월드컵 본선 결승전에서 진 팀은 좌절감으로 가득하지만 경기에 출전조차 못한 팀에게는 좌절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좌절감이란 어떤 일을 하려고 나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좌절의 본질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다. 굉장한 힘든 난관을 극복한 사람이 오히려 작은 시련에 좌절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큰 승리를 맞은 사람이 작은 일에 넘어지는 경우는 지쳤기 때문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경우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로렘나무 밑에서 죽기를 소원했던 사람이다.

인간의 힘의 궁극적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쓰고 지치

궁극적 힘의 근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휴식 꼭 필요 전자기기 사용시간 계획, 다른 활동 즐기면서 중독탈출

준다.

일중독-휴식과 휴가

성공한 리더들은 정기적인 휴가를 즐긴다. 한 때 22,000명의 직원을 관리한 시스코(Cisco)의 CTO(최고 기술 책임자)인 패드마시리 위리어는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매주 토요일마다 디지털 디톡스를 해서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한주의 업무를 맑고 침착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더라는 지위는 인간적 야심이 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탁월한 리더가 되려면 일중독과 그에 따른 극도의 피로가 해롭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창의성과 예리함을 위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해야 한다. 피로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마트 폰에 늘 달라붙어 있다가는 리더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자신을 위한 침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예리한 정신력이 생기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리더에게 있어서 휴가는 새로운 구상과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 휴가로 인해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차단되고 새로운 장소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기대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영감을 받을 수 있다. 크리스천들에게 하계수련회나 특별기도모임도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큰 에너지가 된다. 비즈니스맨이든 크리스천 사역자이든 사업체와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구상과 아이디어 없이 휴가지로부터 돌아온다면 무언가 바طل 때가 되었다는 소리다.

면 탈진하고 좌절해서 실패하는 것이다.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던 진공청소기가 힘을 잃어버렸다. 고개를 가우뚱하며 그 이유를 알아보니 플러그가 빠져있었다. 아무리 강력한 유명 제품의 진공청소기라 할지라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나 선교지, 사업체 등에서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공급받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지치지 않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을 다 써버리고 공급이 중단되면 인간은 좌절하게 된다. 지쳤기 때문이다.

스마트 폰 중독-디지털 디톡스

우리 모두는 급격한 현대문명의 발전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부족할 것 없는 삶을 누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제는 '먹고 더하는 일'보다 '빼는' 일이 중요해졌다. 주변에서 '다이어트, 디톡스'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디톡스(detox)란 '해독, 인체 내의 독소를 뺀다'는 의미이다. 스마트 폰과 태블릿이 생활필수품이 되고 사회문화적 이슈의 중심이 되면서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라는 말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요즘은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에 접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에 '포켓몬 GO'라는 게임이 유행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 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된다. 현재 인터넷 중독보다 약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폰 중독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필요한 솔루션(solution)이 '디지털 디톡스'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란 각종 정보화, 전자기기의 부작용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디톡스-5 Plans

■Plan 1- 스마트 폰 쉬게 하기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에서 스마트 폰을 내려놓는 것이다. 항상 가까이 스마트 폰을 두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 폰을 가방에 넣어둔다든지 하루쯤 집에 놓고 간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할 수 있다.

■Plan 2- 전자기기 사용 시간 계획 짜기
전자기기의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 좋은 디지털 디톡스의 방법이지만 업무와 관련된 일, 혹은 중요한 약속 등 집에 스마트 폰을 두고 다니는 것은 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럴 경우 스마트 폰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간, 예를 들어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자기기 사용금지' 원칙을 정해서 스마트 폰을 꺼두거나 그 시간만큼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노력을 통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 할 수 있다.

■Plan 3- 스마트 폰 사용 시간 조절을 위한 어플 사용하기

아이들을 스마트 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스마트 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어플이나 음란, 폭력, 도박, 피싱 등의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어플 등의 사용이 디지털 디톡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단순히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계획만으로는 의지가 부족해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어플을 이용해 특정시간동안

기기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

■Plan 4- 다른 활동 즐기기

스마트 폰으로 특별히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 폰 대신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과 같이 다른 활동을 통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

■Plan 5- 디지털 디톡스 운동 참여하기

일상생활에서 특정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자는 '디지털 디톡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 노력한다면 혼자서 할 때보다 동기부여나 의지가 더 강해질 것이다.

변화와 변혁 그리고 개혁을 이루는 리더가 되라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친다. 당신이 지금 리더로서 외로운 길을 가고 있고, 당신이 지금 리더로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에게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말릴 것에 대비하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틈새를 찾아낼 기회가 생긴다. 나는 이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당신이 진정 시대를 앞서고 시대를 깨우게 될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눈물먹기

7월은 마음 아픈 달이었다. 매년 7월 첫 주에 시카고 위튼칼리지에서 열리는 코스타에 참석학자가 8,9년은 된 것 같다. 코스타는 올해로 31년의 역사를 지녔다. 처음 시작은 그 당시만 해도 초이스 학생이었던 유학생들을 복음화하는 취지에서 나온 유학생 중심의 복음운동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도 되었고 또 구성원에도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대학원생들 뿐 아닌 나이 든 부모들이 중, 고등부 코스타가 좋다는 말에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하기도 한다. 그동안 자녀양육에 관한 세미나를 인도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지만 때로는 스물그톱을 인도하는 조장들의 멘토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전문 상담가의 숫자가 모자라면 진로, 가정문제 등을 상담하기도 했다. 코스타의 특징 중 하나는 강사들에게 숙식은 제공하지만 강사료가 없고 항공료도 강사들이 자비로 부담을 한다. 사박오일동안 40년 전 대학시절 기숙사 생활을 연상하게 하는 기숙사에 머물면서 제대로 잠도 못자고 강의로, 상담으로 종종거리고 다니는 것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또 다시 가게 되는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때때로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권면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가슴 가득한 감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이도 있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코스타에 그만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카고로 향했다. 조장 훈련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도착한 첫날, 멘토 카톡방에 한 청년이 암 4기인데 누가 만나주겠느냐고 묻는 글이 올라왔다. 그 다음 날 아침 멘토 모임에서는 4년반을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매년 코스타에 참석했던 한 자매가 작년 겨울 소천했는데 남편이 아이들 돌을 데리고 와서 힘들어한다고 보고가 들어왔다. 나는 암 전문가도 아닌데 암으로 오래 전 남편을 보낸 경험, 또 2년 전에 조카같이 돌보던 한 청년을 보낸 경험 때문인지 그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담담히 내 뱃속에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막상 내가 그 두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다. 아내를 보내고 어린 두 아이들을 돌보며 눈물 흘리는 아빠에게 할 말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암흑의 시기에 내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아직까지 우리 가족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분의 신실함뿐이었다. 책장암이 전이된 우리 막내보다 한 살 많은 서른두 안 된 청년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린 것뿐이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다. 필립 안시의 사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함께 먹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한없는 무력감을 느낄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뿐이라고 해도 그것이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힘이 된다면 우리는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들의 풀같이 바람이 불면 시들고 그 자취도 없을 지나가는 인생, 그러나 짧은 땅위에서의 삶 동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죄의 값으로 찾아온 죽음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아픔을 당하는 지체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바라본다하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먹은 눈물로 힘을 얻고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다면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해도 우리는 함께 눈물을 먹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lpyun@apu.edu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목회서신

전쟁의 문제는 품어서 풀어라



여승훈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 왔을 때 두 가지 의식을 먼저 가졌다.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이며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가나안땅의 정복 전쟁에 앞서서 가장 시급했던 일은 전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일 이었던 것이다. 전쟁 전략은 전쟁을 유리 하게 끌고 갈수는 있지만 전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를

얻게는 하지 못한다. 전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를 얻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청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략과 비지니스 전략보다 더욱 우선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right relationship)를 가지는 일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핵심중의 핵심이다. 성경이 어떤 책임인가? 한마디로 problem과 solution에 관한 것이다. 누가 problem을 발생시켰는가? 인간이 "죄"를 범하므로 문제를 발생

시켰다. 그러면 인간이 범한 "죄"의 문제에 대한 solution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시 복음으로 계시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날 일반 학문과 철학이 저지른 결정적 실책이 있다. 그것은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서 나온 해결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해결 방법들은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론에만 매어 달리면 거기에는 언제나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게 된다. 문제 해결의 근본은 문제가 풀어져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므로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문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런 문제들은 문제 해결방법을 시도하지 않아

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산불 나는 것처럼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곧 영적 전쟁터다. 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 우선적인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일에 사활을 걸라.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당신을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진리 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라. 그 복음 속에 잠겨라. 그 복음에 더욱 깊이 빠져보라.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보아도 모든 인류와 교회들이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 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을 진실로 진실로 고백한다. 오래전 어느 은퇴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 "여 목사, 나는 사람 변한다는 말 안 믿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얼마나 실망을 크게 하셨으면 그렇게 생각했다. 옛날에 세살버릇 여든 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 정말 안 바뀐다는 말 공감한다. 그러나 완전히는 공감하지 못한다.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 바뀌는 사람의 속성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복음 속에 잠기면 사람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이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의 차원을 넘어서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하는 사람은 많으나 바로 이것이다 하고 무릎을 치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것은 곧 진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벽한 진리요 완벽한 능력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없이 사랑하며 찬양하라.

캘리포니아주 기독교대학 정체성 지키자

SB1146법안 대책모임...8월 3일 결정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바이올라 대학교 등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기독교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체플 및 졸업식 등 공적인 모임에서의 기도, 그리고 성경과 목회와 폐지 등을 담고 있는 초약법안 SB1146법안이 오는 8월 3일(수) 결정여부가 판가를 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내 모든 기독교대학들은 더 이상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학교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APU수석부총장 데이비 빅스비 박사가 법안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SB1146법안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위한 모임이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주관으로 25일 오후 한인타운 내 용수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APU 수석부총장인 데이비 빅스비 박사와 총장특별자문위원 박성민 박사, 그리고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송정명 목사, 박희민 목사,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담임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장 엄규서 목사, OC교협회장 민승기 목사와 수석부회장 이호우 목사 등 교계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나누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지사가 SB1146법안 통과를 승인하는 사인을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최종결정하게 된다. SB1146법안은 기독교대학에서 성경과목, 공적모임에서 기도폐지, 체플의무화 폐지 외에 친동성애 법안까지 포함되었다. 남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이라 주장할 경우 여학생용 화장실과 샤워장 사용은 물론 여학생 기숙사에서 생활이 가능하며, 여학생과 룸메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 데이비 빅스비 박사는 대학당국이 이러한 일들을 문제 삼을 경우 다음 5개 항목에 따른 문제를 설명했다.

△그날그날의 정체성에 따라 샤워장, 화장실 및 라커룸 사용이 자유로워지며 생물학적인 이성과 기숙사 룸메이트가 가능해진다. △이 모든 것에 학교가 제재를 가할 때 법정 소송에 들어가면 100% 학교당국이 패소하게 된다. SB1146법안이 최종 통과가 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박성민 박사는 SB1146법안 저지를 위해 교계가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박성민 박사는 "SB1146법안은 동성애학생들을 기독교대학 등 종교교 학교에서 보호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리카르도 라나가주상원의원(벨 가든 구역)에 의해 발의된 지난 6월 21일 주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8월 주상원에서 법안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원래 8월 12일 법안통과여부를 가리게 됐다. 하지만 교계단체와 기독교대학 관계자들이 법안통과저지를 위한 모임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주의회에서 가주 내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반발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통과여부를 8월 3일로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정부로부터 최고 9천 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학자금 용자가 금지된다. 이 경우 용자를 받아야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며, 소규모 대학들의 생존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APU나 바이올라 등 기독교대학에서 교수와 직원채용 시 신앙에 맞게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즉 채용 때 실시되는 면접이나 지원서에 성적 성향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게 되며, 무신론에 입각한 강의를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 △학생들에게 학교의 술 담배 금지 및 체플참석 등 교칙준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교회들이 SB1146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속한 지역의 상하원 의원에게 전화나 이메일, 그리고 우편으로 보낼 것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자들은 시민권자들에게 한해서다. 의견을 보낼 때 해당지역 의원이 SB1146법안을 지지할 경우 차기선거에서 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할 것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SB1146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줄 것 등이다. 송정명 총장은 "SB1146법안은 단순히 APU나 바이올라 등 주류 기독교대학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월드미션대학교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등 한인신학교들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교계가 하나로 뭉쳐 기독교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APU한인동문회 주최 집현특강이 보고 구약학 교수인 존하틀리 박사를 강사로 나선가운데 열렸다

APU 한인동문회 주최 집현 특강 강사 존하틀리 박사... "율법서와 선지서들의 참모서"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APU 회장 최장식 목사)가 주최한 집현특강이 11일 오후 5시 본교 웨스트캠퍼스에서 열렸다. 존 하틀리 박사는 "집현은 시적으

로 표현돼 있으며 평행구조, 대립구조, 그리고 앞 구절과 뒤 구절을 비교할 때 뒤 구절이 진보적인 표현으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현서는 굉장한 힘이 있

고 호소력이 있다. 그리고 목상을 요구하며, 또한 거룩하지만 위트가 들어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틀리 박사는 "집현서는 율법서와 선지서들에 대한 참고서로 주어졌으며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40년간 APU에서 구약학을 가르쳤으며 지난 5월 은퇴한 존 하틀리 박사가 강의했으며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오는 8월 29일(월) 오전 10시에는 김세운 박사(풀러신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로마서 강의가 APU LA센터에서 열린다. ▲문의: (818)331-5478최장식 목사, (310)988-0099김사라 전도사 (박준호 기자)



아마존선교후원회 발족 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필라에서 아마존선교후원회 조직 김선훈 선교사 사역후원...33명 참여

아마존선교후원회가 지난 19일 필라델피아 한빛성결교회(담임 이대우 목사)에서 발족예배를 드렸다. 동 후원회는 필라델피아 제 34대 교협 회장을 지내고 남미 아마존에 파송을 받은 김선훈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선교 후원기관으로 목회자와 평신도 33명이 참여했다. 이날 모임 1부 예배는 고택원 목사 인도로 김영현 목사의 기도가 있는 후 김만우 목사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16:5-10)는 제목의 말씀에서 "바울의 마게도니아 선교 사역에서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선교지의 부름, 선교사 자신의 순종이 있었다"며 "김선훈 선교사의 아마존으로의 파송

은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지의 요청과 선교사 자신의 순종적인 사역으로 시작된 역사"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영현 목사 인도로 아마존선교와 김선훈 선교사를 위한 통성기도가 있는 후 황준석 목사의 축사와 박동배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어 김선훈 선교사 부부의 인사가 있었으며 전영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후 이대우 목사는 광고와 아울러 "필라아마존선교후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삼국경신학교를 통한 목회자 양성교 교회 개척 설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후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

다"고 모임의 성격을 설명했다. 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김만우 목사(재미고신증경총회장/필라제일장로교회 원로), 황준석 목사(큰민음제일교회/남침례회 증경총회장), 전영현 목사(서광교회/미기총대표회장), 윤철환 목사(엠블러장로교회 원로/원로목사회 증경회장), 서장석 장로(영생교회 원로/필라교협 증경부회장). △회장: 고택원 목사(새한교회/미주한인예장 총회장) △부회장: 박동배 목사(필라서머나교회/예장미주합동 총회장) △총무: 이대우 목사(한빛성결교회/미기총사무총장/군선교 필라지회장) △서기: 안문곤 목사(주님의교회/필라교협회장) △회계: 김영현 목사(한마음교회/필라교협총무) △사무간사: 고광일 집사(MK printer). 동 후원회 회원 자격은 김선훈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정기적 모임을 갖고 남미선교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도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마존선교 후원 문의와 연락하는 총무 이대우 목사에게 연락하면 된다(267-577-0392, 640-5096). (기사제공: 아마존선교후원회)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주최한 영화의 심리학 세미나에서 영화평론가 심영섭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영화의 심리학' 세미나...강사 심영섭 박사 한미특수교육센터 주최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가 주최한 '영화의 심리학' 세미나가 23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강당에서 열렸다.

영화평론가 심영섭 박사(대구사이버대학교 심리학과)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영화 '봄날은 간다', '마빈의 방', '조스', '빌리 엘리어트', '판의 미로', '고야' 등 영

화를 분석하고 영화에 내재된 메시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심 박사는 "모든 지식은 연결돼 있다. 따라서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된다"고 말하며 "인문학적 통찰력을 영화와 문학에 접하게 될 때 나만의 통찰력을 갖게 되며 결국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며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는 1000개의 거울이며 감독이 제작하는 의도가 있지만 관객입장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해석이 결코 틀린 해석은 아니다"라 말하며 "다양한 해석은 결국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되며 그것은 상당으로 이어질 때 상대방과 내담자간 원활한 소통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엘피스가정사역원 개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앞줄 가운데 본사역원장 박운송 목사

갈등 나누는 사역...회복 소망 엘피스가정사역원 개원예배

엘피스가정사역원(원장 박운송 목사) 개원예배가 24일 오후 5시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성 목사)에서 열렸다. 박운송 목사는 "하나님 은혜로 엘피스 사역원이 시작됐다. 이 사역

원은 평신도 리더들, 여성목회자들, 사모들을 위한 사역이다. 부부갈등, 교회갈등, 나와 갈등 등을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된다. 저희 사역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소희 사모(본 사역원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박운송 목사가 인사말씀을 전했다며 정종원 목사(아이엠교회 담임/꿈이있는자유)가 찬양 인도, 다니엘뉴먼 목사(APU 교수/본사역원 고문)가 기도, 김사라 전도사(본사역원 재정담당)가 성경봉독 했으며 김용민 목사(본사역원 이사장/UMC부서지역 코디네이터)가 '돕는 자'(눅10:30-3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변은광 목사(벨리생명의교회)가 헌금기도, 전영호 박사(켄사스시티 소재 세인트폴대학교 신학교 실천신학교수), 박성민 박사(APU부총장), 신원규 목사(좋은마음교회 담임)가 격려사를 전했다며 김낙인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토론토 가든교회 김성민 목사 위임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캐나다노회 소속 토론토 가든교회가 오는 31일(주) 오후 5시 새 담임 김성민 목사 위임예배를 드린다. 김성민牧사는 총신대원과 웨이스신학교(M. Div)를 졸업하고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사과정 중에 있다. 동 교회는 또 반주자로 청빙한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8월 13일이며 우편이나 이메일(gardento@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416)490-9060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클리브랜드한인장로교회(KPCA 소속)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요건은 복음주의 보수장로신학교(M. Div)를 졸업하고 이민목회경력 5년 이상(당회원 부목사 포함)된 영주권(시민권)자로 45-55세.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본인 및 가족 소개서, 목회비전과 소명서 1부, 신학교졸업증명서, 소속교단 재직증명서(KPCA이거나 가입가능), 목사안수증, 추천서(목회자) 2부, 최근 6개월내 설교CD 2편(동영상)이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7월 30일.
▲문의: younghlee53@gmail.com

무료 SAT반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Y.A.L.E 프로그램이 리더십 스킬과 SAT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무료 SAT반을 오픈한다. 기간은 8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강료 400달러를 디라짓 하고 프로그램 수료시 반환한다. 장소는 패밀리터치 뉴저지 오피스(240 Grand Ave, suite #6, Leonia).
▲문의: (201)241-4422

목회자자녀장학금 · 성극관람 보고

뉴욕목사회 제 2차 임실행위원회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제 2차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 뉴욕대한장로교회(담임 김전 목사)에서 열렸다.

제44회기 뉴욕목사회는 후반기 사업으로 △목회자자녀 장학금 수여(중고등학생)와 △성극뮤지컬 “삼손” 관람(9월 27일)을 보고했다.

또 목사회 ID(20달러) 발급을 안내했다.

1부 예배는 임재홍 목사 인도로 기도 신현택 목사, 설교 황경일 목사, 통성기도, 광고 장현숙 목사, 축도 김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경일 목사는 “환경을 이기는 믿음”(행16:2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대할 때



뉴욕목사회 제 2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면 항상 나 자신을 많이 생각한다. 요즘 샅군목사가 많다. 나는 어떤

가, 자성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오직 복음만을 위해, 말씀만을 위해, 사명만을 위해 살아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날 이 세속적인 환경에서 승리하는 목회자들이 되기 바



뉴욕지구장로연합회 제41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 제41차 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41차 조찬기도회가 7월 21일 오전 8시 뉴욕타임교회(로랜스리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김영호 장로 인도로 기도 신현택 장로, 말씀에 로랜스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리 목사는 고전4:6-7을 본문으로 “본분을 다함”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다민족선교대회와 연합회를 위하여(정권식 장로) △영적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위하여(송운섭 장로) △뉴욕 타임교회를 축복하소서(최재복 장로) 라는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헌금 특송은 뉴욕타임교회 지휘자 신동기 전도사(뉴욕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의 트럼펫 연주가 있었다. 김주명 장로의 헌금기도에 이어 준비위원장 황규복 장로가 다민족선교대회 진행사항을 보고했

다. 예배를 마친 후 회장 손성대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타임교회(TIME,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of Evangelism)는 사이즈는 작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름다운교회”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장로연합회가 작은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며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감당하자”고 말했다.

로랜스리 목사는 AM1660에서 English bible talk show를 맡아 진행하며 교회에서 주 2회 영어성경과 영어회화를 가르친다.

주요덕 장로의 식사기도 후 교회에서 준비한 아침식사를 교회 야외 식당에서 이정복 장로의 연주 가운데 천교시간을 가졌으며 7월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백혈병 투병중 김종성 목사, 골수 이식



백혈병 투병중인 김종성 목사(UMC 세계선교부 은퇴, 사진)가 골수 이식을 위해 지난 20일 맨해튼 마운트 사이나이(Mt. Sinai) 병원에 입원했다.

미국연합감리교(UMC) 동료 목회자들은[본지 1586호 16면 참조] 새생명재단(회장 김세진)과 공동으로 김종성 목사와 맞는 골수를 찾던 중 한국의 ‘현철의 집’에 등록된

골수 기증자 1명이 김 목사와 100% 매치 확인을 받았다.

고석천 목사(호프라운데이션 이사)는 지난 15일 이메일을 통해 본지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채취된 골수는 한국의 골수당당 직원에 직접 26일 비행기 편으로 들고 왔다.

김종성 목사는 자신의 골수를 빼내고 전골수가 몸에서 빠진 후 한국에서 온 골수를 이식을 받게 된다.

이식수술 후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1달 정도 특수 병실에 머물게 되며, 한달 후 면회가 가능하다. 회복 상태에 따라 3-6개월을 병원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고석천 목사는 밝혔다. (유원정 기자)

목회자자녀 여름휴양캠프 “NOAH” 성료

YWCA코너스톤(담임 김종원 목사)이 주최한 목회자자녀들의 여름휴양캠프 프로그램 “NOAH”가 프로그램 20주년을 기념하며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뉴저지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열렸다.

목회자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과 단합을 위해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봉사하신 김종원 목사와 그 스태프들의 수고와 장소를 10여년 가까이

대여하신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원장 신정하 장로)의 지원으로 올해도 목회자 자녀 80여명과 스태프 50여명, 목사부모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프에서도 PK(목회자녀)들이 신앙과 회복 그리고 우정을 기르는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YWCA코너스톤)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열린 “NOAH”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기대...우리의 응답”

뉴욕목우회 7월 예배, 설교 유상열 목사

뉴욕목우회(회장 김전 목사) 7월 예배가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 뉴욕 대안교회에서 열렸다.

예배 후 교회개혁 및 미자립교회 사례보고가 진행되는 것이 통례이나 이날 2부 발표자 권재혁 목사(뉴욕새날교회 담임) 개인사정으로 사례보고를 먼저 한 후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현영갑 목사 인도로 기도 이창종 목사, 설교 유상열 목사, 축도 김전 목사가 맡았다. 설교 전 특송은 목우회 회원 3인의 찬양이 있었다.

유상열 목사는 “하나님의 기대”(렘1:15-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대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가치를 더해져야 한다는 ‘기대차이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생이 헛됨을 노라한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에 인생의 궁극적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다”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대해 본문 중심의 3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 피상적인 아닌 하나님과의

관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또 “우리가 오늘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며 특별히 자신에게 닥친 많은 연단과 고난에 대해 전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어떤 역경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2부 기도회는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김홍석 목사, “뉴욕복음화와 목회자를 위하여” 김명옥 목사, “한국의 교회와 통일을 위하여” 김연규 목사가 각각의 제목으로 인도했다.

3부 회무는 김영환 목사 사회로 회원점명(장현숙 목사), 업무보고(영상), 회계보고(최현준 목사), 안건토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는 △목사회 경증회장 초청만찬 △미동부한인목사회 체육대회 △2016년 목사회 특별연합 기도회로, 회계보고는 현재 잔고 총 14,194.43 달러로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우회 8월 월례예배에서 유상열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Large church directory advertisement for '동부(NY, NJ) 교회' (East NY, NJ Churches). It features a central banner with the tex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Below the banner are numerous small boxe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church. Each box includes the church name, the name of the pastor, and contact information (phone, fax, website). Churches listed include: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에벤에셀교회, 예사랑교회, 킨즈성교회, 킨즈한인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The advertisemen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in office: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북한 핵 폐기 천만인서명운동 전개한다

9월15일 미서부지역 발대식, 상임미주대표 박희민 목사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2월 29일 출범한 북한 핵 폐기 천만인서명운동(상임대표 이종윤)은 지난 4개월 동안 목표 1천만 명의 1/4에 해당하는 250만 명의 서명을 받은 가운데 미주지역에서도 북한 핵 폐기 천만인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9일 정오 JJ 그랜드호텔에서 교계와 사회단체 기관장들이 준비모임을 갖고, 오는



북한 핵 폐기 천만인서명운동 전개를 위한 미서부지역 준비모임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9월 15일 갖게 될 창립대회를 위한 임원 조직에 들어갔다.

이 행사에는 박희민 목사를 비롯, 송정명 목사, 한기형 목사, 강신권 목사, 임규서 목사, 임태랑 평통회장, 김재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 미주대표로 박

희민 목사를 뽑고 이어서 집행위원



유엔젤보이스 콘서트가 웨스트힐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주제 웨스트힐장로교회 유엔젤보이스 콘서트 성황

한국 클래식계의 아이돌이자 한국의 알티보인 유엔젤보이스 콘서트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주제로 22일 오후 7시30분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유엔젤보이스 리더 손태진 씨는 "유엔젤보이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유엔젤보이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젤보이스 멤버 구현모 씨는 "만더운 날씨인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으며 이렇게 뜻 깊은 연주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김인식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콘서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

을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성령이 오셨네' 등 찬양곡과 반주자 문재원 씨의 피아노 솔로 연주, 그리고 '투우사의 노래', '꽃노래' 등 오페라곡과 '아다지오', '파티타네', '오 솔레미오' 등 성악곡을 불렀으며 'You raise me up', 'The Prayer' 등을 불렀다.

이날 공연은 '각정 말아요 그대'와 'Amazing Grace'를 앵콜곡으로 부른 뒤 김인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공연 후에 본 교회 교인들과 청소년들이 유엔젤보이스 멤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연출돼 이들의 넉넉임인 '클래식계의 아이돌'이란 호칭을 실감케 했다.

(박준호 기자)



웅기장이선교단 찬양집회가 한빛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평화를 노래하는 시인 홍순관 LA콘서트가 마가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평화를 노래하는 시인 홍순관 LA콘서트 "저기 오는 바람" 주제

평화를 노래하는 시인 홍순관 LA콘서트가 23일과 24일 양일간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열렸다.

"저기 오는 바람"이라는 주제로 열린 콘서트에서 홍순관 씨는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우분투', '쌀 한톨의 무게', '꿈바야', '조울' 등을 불렀다.

홍순관 씨는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계절이 망가졌다.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명은 결국 아이들은 물론 자연까지 악영향을 받게 됐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비유와 은유로 말씀하신 성경말

씀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산다. 들의 풀도 산의 나무도 강도 바다도 함께 산다. 함께 산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함께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노래한다"고 말했다.

이 콘서트는 노아네트워크(대표 김주환) 주관으로 열렸다.

(박준호 기자)

한빛교회, 웅기장이선교단 찬양집회 성료

한빛교회(담임 차광일 목사)는 웅기장이선교단 찬양집회를 24일 오후 2시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태성 웅기장이선교단 단장은 "LA에 2년 만에 와서 집회를 가지게 됐다"며 "교회마다 부흥되고 회복되는 것을 많이 발견했다. 성도들이 찬양으로 기뻐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주 품에', '은방이여 주를 찬양', '우리주의 성령이' 등을 불렀으며 한빛교회 성도들과 찬양으로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평화대회: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 오후 9:00(토) 영안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평화대회: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igcusa@yahoo.com / www.lai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2: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626)691-0691, (F) (626)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n.org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특별찬양: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fresco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월-토) 영안예배(침소-KDC, 링컨빌센터): 1부: 오전 9:20 /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facebook.com/fresco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회선 없음), Tel: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주-일) (침례교) 오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4-7274,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월-토) 성안영안예배: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안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ithel@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안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A),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주-일)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토요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안영안예배: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00(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j.org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i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3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ly.com / e-mail: pastor@cornestonely.com Tel: (310)530-4040(CA),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전통),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토)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월-토) 장미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8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통일북한선교 기도소식



북한 주민의 부족한 식량 &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

2016년 북한 내 주민들이 겪는 식량 부족이 4년 만에 최대치가 될 것 같다고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가 국제 식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은 조금씩 개선되어왔지만 향후 10년 동안도 북한 주민 30% 정도

는 식량 부족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힘없고 뒷배경이 별로 없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의 고통을 계속 겪고 있고, 적어도 이런 상태라면 10년이 지나도 그 고통은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중요거점을 겨냥한 암시하는 미사일 발사, 지속적인 핵개발 징후들은 점점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다. 북한 내 많은 주민들을 여전히 굶주림 속에 내몰고, 군사적 과시를 위해 북한의 노동력을 해외의 식당과 공장 등으로 다양하게 내보내어 그 대가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악한 독재자의 어이없는 악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모범이 되어 섬길 선교의 일꾼들

김일성도 그랬지만 김정은도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고아원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물론 현재 자신 주위에 있는 측근들의 관리도 더욱 철저합니다. 아무리 독재자라도 자신의 명령을 실행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치와 군대가 철저히 자기의 손아귀에 놓이도록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하부조직을 관리합니다.

오랜 동안 함께 기도하고 사역소식을 나누었던 김재열 선교사님이 북한과 중국에서의 사역을 뒤로 하

고, 한국에 가서 북한선교의 일꾼으로 함께 할 탈북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탈북자 분들 중에 신학교에 진학한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돕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헌신하는 이유는 지금 보내주시는 최고의 선교일꾼이 준비되도록 영육 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 일꾼이 되고, 북한선교 통일선교의 팀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구원을 소망하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NIM
prblessnk@gmail.com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8.15 성명서

조국이 36년간 강제 감청기에서 해방된 지 71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1. 흠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거이아 보시려던 어린님 벗님 어찌하리/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영긴 자취니/같이같이 지키세 같이같이 지키세

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다같이 북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세상에 보람 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정인보 작사, 윤용하 작곡 "광복절 노래")

이 광복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감동을 합니까?

그러나 해방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 전에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 통일이 되어야 온전한 광복절을 지킬 것입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적, 민주적, 복음적으로 한민족이 하나가 될 때 이뤄집니다.

작금 조국은 전원이 가시지 않고 세계 평화를 깨는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불안한 하는 북한의 전쟁연습과 이에 대응하는 사드배치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일제 강점 전 대한제국처럼 한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서남북의 한민족이 하나의 나라, 한 국가, 하나의 애국가, 같은 교과서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미주에 있는 4500여개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미기총은 이런 완전 통일을 위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제 2의 해방인 통일의 그날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통일 운동을 위해 우리는 △휴전이 아닌 종전 협상을 제안합니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의 임진강과 남한의 한탄강 지역을 국제관광지로 만들고 △DMZ에 남북한 성도들이 출석할 통일기념교회(가칭 "영광과 평화교회") 건립을 제안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은총,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조국위에 풍성히 함께 계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6년 8월 15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영현 목사
(기사제공: 미기총)

선교 소식

아르헨티나 밀알선교단 창립예배

지난 7월 18일 브에노스아이레스 백구촌 마난티알 회관에서 아르헨티나 밀알선교단 창립예배를 드렸다.

세계밀알 총재 이재서 박사부부를 비롯한 미주 남가주밀알(이중희 단장), 시애틀 밀알(장영준 단장), 샌프란시스코 밀알(김정기 단장), 브라질 밀알(최은성 단장), 파라과이 밀알(김미숙 단장)을 비롯한 알젠티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데 진행된 창립예배는 강성철 목사(브라질 밀알)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형석 목사(드림교회)의 기도 후 이재서 총재가 세계밀알의 역사를 한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동영상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였다.

이어 아르헨티나 밀알을 이끌어 나갈 실무자들을 위촉하였다.

이사장 박정기 장로와 이주희 단장을 임명하고, 최은성 목사를 남미총단장으로, 강성철 목사를 남미총



아르헨 밀알 창립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단 이사장으로 각각 임명하고 임직패를 전달하였다.

이어 나호철 목사(알젠티나중앙교회)가 축사를 한 후 영수증 목사(양문교회)의 축사로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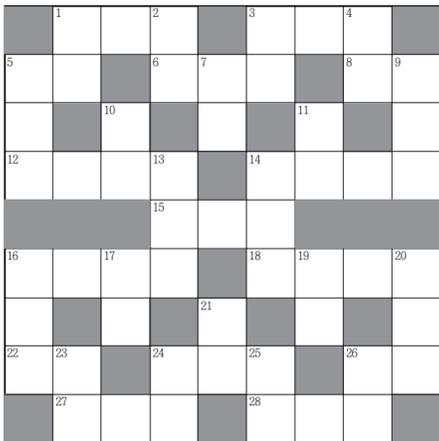
동 선교단은 아르헨티나 각 지역

에서 함께한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틀간 이재서 총재의 특강과 함께 20년 이상 장애아를 섬겨온 각 지 단장들을 강사로 모시고 세미나를 가졌다.

(기사제공: 브라질 밀알)

십자말 • Cross Word (133)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1. 기드온이 에브라임인으로 미디안인을 추격해 이곳을 취하고 그 장 관 오투와 스렘을 잡아왔다(사7:24).
3. 가나안북지에 들어간 갈렙의 부친(민14:30).
5. 유대 남부의 성읍(수15:50).
6. 배반하고 모욕하는 사람(잠24:21).
8.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자손이라(신9:2).
12. 애굽의 한 성읍(렘2:16).
14. 에돔을 다스리던 삼라의 고향(창36:36).
15. 예루살렘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행6:5).
16. 예레미야의 아들(렘35:3).
18.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경계에 있던 샘으로 여리고와 베다니의 중간에 있다(수15:7).
22. 많은 별(사14:13).
24. 짐승을 잡는 사람(시91:3).
26. 시므온의 족장이며 여다야의 아들이다(대상4:37).
27. 명령을 하는 사람(사55:4).
28. 에셀의 자녀(창36:27).

<세로 푸는 열쇠>

1. 사울왕의 시체를 이 성벽에 못 박았다(삼상31:10).
2. 브두엘의 아들이요 리브가의 오라비요, 야곱의 외숙이며 장인이다

(창24:15).

3. 남자 아닌 사람(창1:27).
4. 스블론에 있던 성인데 위치는 불명(수19:13).
5. 예수께서 귀머거리 어눌한 자에게 말씀하신 아람말인데, 열리라는 뜻(막7:34).
7. 역에서 부리던 심부름꾼(예3:13).
9. 다윗의 시, 곧 성전을 완공하고 한 노래(시30:).
10. "하계"할 자리의 상태를 직접 부르는 말(인정대명사).
11. 북아라비아에 있는데, 욥의 친구 엘리후의 고향이다(욥32:2).
13. 12소선지 중의 한 사람.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구시의 아들(습1:1).
14. 로마 분봉왕 해루 안디바스와 같이 공부한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로 더불어 안디 욥교회를 봉사한 교사이다(행13:1).
16. 유다의 한 도시로 가드의 동북 10킬로미터 되는 산 위에 있음(수10:3).
17. 마귀, 악마.
19.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지시를 받고 하란을 떠나 이곳에 이르매, 다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라함으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창12:6).
20. 레아가 여섯째로 낳은 야곱의 열 번째 아들(창30:20).
21. 마찰에 의해 불을 일으키는 물건(명사).
23. 본 이름 외에 그 사람의 생김새나 버릇 따위로 지어 부르는 판 이름(행1:23).
24. 어떠한 임무를 띠고 심부름하는 사람(왕상20:2).
25. 군병, 병사(잠24:34).
26. 호리족속 소발의 맏아들(창36:23).

십자말 정답



2016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대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6년 10월 1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미주복음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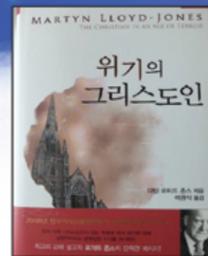
아벤티브(뉴욕, 미국)
유럽크리스찬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엔젤레스,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로스엔젤레스, 미국)
크리스찬 헤럴드(로스엔젤레스, 미국)

추천도서



폴 워셔 저, 생명의말씀사



마틴 로이드존스 저, 지평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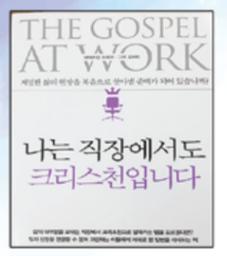
켄 가이어 저, 디모데



박영선 · 김관서 저, 두란노



강준민 저, 두란노



세바스찬 토커 · 그렉 길버트, 생명의말씀사

후원 기독교서점협회 *도서구입처

-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선교칼럼

고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저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2003년부터 채플린(교도소 교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통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기적과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마치 영적인 수술실이나 응급실과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고통과 아픔을 받고 주님의 기적과 치유를 체험하는 재소자들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분의 크신 긍휼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K라는 25세의 청년이 저와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청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적인 실망을 거듭하며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 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살해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옆방에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며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 잠시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일 K청년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악한 마귀에게 문을 열어 주게 되어 아픔의 시간을 연장시키며 고통을 키우는 격이 되니 힘들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라고, 또 우리가 용서하고자 도움을 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청년은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계속 구했고, 얼마 뒤 그는 분노와 증오에서 서서히 놓여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 K를 쉽게 놔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강한 마귀가 자신을 공격하는 꿈을 꾸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고통스러우며 잠드는 것이 무척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는 K에게 성경 말씀을 주며 한동안 그를 위해 계속 기도했고, 놀랍게도 K청년을 다시 상담했을 때 그의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9절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60번 이상 읽었는데 그 이후, 잠을 다시 잘 수 있게 되었고 악몽도 꾸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기쁨과 미소가 얼굴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 K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방에 복역하던 동료 재소자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많은 죽은

은 자살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소자들을 빨리 상담하고 전적으로 도와야만 합니다. 그날도 자살한 사람과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들이 자신들이 그 동료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 했습니다. 간혹 그들이 죄책감과 마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고통을 잊고자 목숨을 끊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저는 그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상담을 하며 그 일을 놓고 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청년은 동료에 대한 기억을 쉽게 지울 수가 없으며, 충격이 가시지를 않아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고, 마치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나는 여태까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K청년에게 저 자신이 마음이 아플 때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아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당신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질 때까지 계속 이 기도를 반복하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날 저는 K의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며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K청년은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서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라고 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빌4:4)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회의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말씀과 기도로 체험했다며 자신 있게 하나님을 간증하곤 합니다. 그는 믿음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에 묶여있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청년의 회복과 치유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이며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저를 불러 주시길 원했다면, 저는 K청년의 회복과 치유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재소자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저를 이 사역으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인/터/뷰

한국의 열... "만남과 소통"

8월 5일 월드디즈니홀

그동안 여러 의미 있는 음악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LAKMA(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가 올해에도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는 8월 5일 LA 최고의 명소 월드디즈니홀에서 5번째

'음악을 통한 만남과 소통'이란 주제는 백낙금 씨가 작곡한 'Succession'곡에서 얻었다.

이 곡의 텍스트는 구약 역대상 2:1-14까지로 엘리사가 스승인 선지자 엘리야에게로부터 갑질의 영감을 받은 장면으로 이를 우리 이민 1세대와 2세에 비유했고 1세대의 애환과 1세대와 2세대의 갈등, 그리고 2세대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그렸다.

윤임상 교수는 "이민 1세초기 이민자들은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고 그런 삶으로 인해 한이 많지요. 거기에 1세대와 2세의 갈등으로 소통이 안

로 '한국의 열(The Spirit of Korea)'이란 대 주제 아래 '만남과 소통'이란 소주제를 갖고 대단원의 막을 올리기에 앞서 21일 오후 본지를 방문한 윤임상 교수(음악감독 겸 지휘자), 김재숙 교수(단무장), 작곡가 백낙금 씨를 통해 음악회에 대해 들어본다.



한국 윤학원코랄과 다민족 구성 라크마콰이어의 합창 콜라보레이션

됩니다. 그러나 1세대들은 신앙을 지키며 자손들에게 아메리칸이 아닌 코리안 아메리칸임을 심어주었지요. 그 안에 한국의 열이 담겨있고 2세대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사회와 부딪혀 가며 커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음악을 찾아 보시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서보고 싶은 곳이 월드디즈니 콘서트홀이다. 뿐만 아니라 다우타운을 들어서노라면 웅장하게 서있는 디즈니홀을 보는 이들도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라크마가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곳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윤임상 교수는 말한다. "5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즈니홀을 고집하는 데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한인 이민자, 소수자가 많은 타민족들에게 한민족의 문화적, 음악적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고 둘째로는 저희 라크마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라면 이것을 통해 한인 음악인들을 발굴해서 미 주류 사회에 비취 주고 싶은 것이지요. 백낙금 작곡가는 작년에 주류사회에 임종이 되었지만 이번 음악회를 통해 더 많이 음악성이 전파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에 김재숙 교수는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게 되는데 작품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음악이 좋다는 것을 비추고 싶습니다. 채영석 작곡가는 2년 전 아리랑 환타지로 초연을 했는데 이번에 Exodus를 준비했습니다"라며 음악을 통해 주류사회와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이뤄질 것임을 천명했다.

이처럼 장대한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중의 하나로 한인들 가운데 잠재해 있는 '티켓문화'를 꼽았다. "뮤지컬은 비싼 가격으로든 좋은 자리를 찾아 관람하지요. 그런데 1년 동안을 준비한 귀한 음악회임에도 미리 티켓을 구입하는 문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지요. 좋은 음악회는 좋은 가격,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보는 문화가 점차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번 행사의 살림을 맡은 김재숙 단무장은 아픔을 내비쳤다.

또한 "한인은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가 클래식이 밀려가는 형상입니다. 잘 아는 가곡을 해야 즐거워하지요. 창작곡에 대한 이미지는 좀 그렇죠?(웃음) 그래서 이번에 재미있는 섹션도 준비했습니다. 윤학원 교수님 섹션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음악을 메들리로 만들었고 각 곡은 팝, 종교, 민속, 코믹, 재즈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소개 되

고 안무까지 준비돼 마치 드라마를 연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함께 동석한 백낙금 작곡가는 "이번 음악회가 기대 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작년에 LA Master Choral에서 처음 Succession을 발표했는데 외국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지휘자도 외국인이라 한국음악의 섬세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만족하게 표현해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윤임상 교수님이 잘 표현해주셔서 이곡을 통해 단순히 '좋았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이 치유되고 민족과 하나님이 마음에 남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라크마콰이어에는 많은 현지 음악인들이 조인돼 있다. 라크마에 대한 인소문과 전통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아 단원을 모으는 것은 문제가 없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90명의 음악인이 조인됐는데 이번에는 40명만 선택 조인했다. 이들 가운데는 필리핀, 타이완, 중국, 일본, 미국인 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음악으로 하나 되고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멋진 무대가 펼쳐지게 된다.

음악회에 관한 문의는 (213)235-8972 김재숙 단무장에게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사모의 지혜로운 조언을 위해 몇가지 힌트

사모의 지혜로운 조언은 남편의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다. 만일 건설적인 비판을 해서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질 때 사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편이 첫 번째 실수를 했을 때 비판을 해서 안된다. 첫 번째 실수를 했을 때는 아무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자신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고 그 실수를 잘 처리하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사랑으로

도움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사모가 능력이 많고 사명감이 투철하여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열심히 뛰다 해도 오히려 그것이 남편의 영적 지도력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목회 사역에 누를 끼치거나 교회에 문제를 가져온다. 그것은 남편을 돕는 '에제르'의 역할을 잘못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11) 사모는 섬김의 중심축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통을 받는 목회자들 중 대부분의 경우는 아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나치

인격과 부족한 성품이 다들어지는 훈련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아내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자기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빨리 인식하고 순응해야 한다.

사모단상

신경성 위계양 필자가 목회 초년에 몇몇 성도들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받았는지 신경성 위계양까지 걸려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들 때문에 필자의 모난



이희숙 사모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7)

가다리고 지지해 준다. 그가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이 상해 있을 때 실의에 빠져있을 때 시장하거나 피곤할 때 바빠 때에는 비판은 금물이다. 먼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린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화할 기회를 얻어서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한 뒤에 지혜롭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남편이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치명적인 비판은 금물이다. 설사 그 비판이 옳다고 해도 치명적인 비난을 받을 때 목사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좌절하며 일할 의욕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 열정을 가진 사모들이라고 한다. 사모는 모든 일을 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섬김의 중심축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신앙 인격과 성품이 다들어졌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필자의 강한 훈련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

"확실한 소명감이 없이는 승리하며 사모의 길을 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불타는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성품과 신앙 인격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랜 경건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야 한다. 사모의 사역의 최종적인 관심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필자는 교회를 위하여 활동할 때 교회의 어느 부서에서 사모의 도움을 요구할 때면 항상 당회장 목사님의 허락을 받으라고 한다. 교육부 장로님께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건축위원장이 도움을 청해도 항상 먼저 당회장 남편 목사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

목회자의 아내가 교회와 남편의 필요에 따라 열심히 목회를 도와 봉사하면서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남편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느 강사 목사님은 ‘사모들은 남편 목사에게 사랑과 인정받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력히 권면하셨다. 이 세상에 사모들처럼 어려운 위치에 세움을 받은 특별한 일꾼들은 없다. 사모는 단지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일생을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래서 확실한 소명감이 없이는 승리하며 사모의 길을 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불타는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성품과 신앙 인격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랜 경건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모에게 있어서 사역의 현장은 모난

게 되니 그들이 너무나 고마웠다. 그리고 심히 부족한 사모를 항상 격려해준 남편과 필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목회자 아내의 영광은 고난 자체가 아니다. 사모의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사모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반응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없다면 사모의 고생은 고통으로 끝날 것이다(롬8:18).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문제를 바라보거나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의 도움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시다(롬 8:28).

목회자의 아내는 사람들 앞에서 부드럽게 모든 사람들을, 특히 남편 목사님과 자녀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저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남편 목사의 좋은 ‘에제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목양에 승리를 가져오므로 남편 목사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모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hslee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교회의 권세(마18:15-20)찬323장

교회는 신자의 모임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기에 어떤 권세를 보이셨습니까? 첫째,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15). 죄 지은 형제를 권해 돌이키게 하심으로 형제를 얻는 것은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는 권세가 있습니다(18). 교회가 매는 일은 권징입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전정하는 것과 같습니다(요15:1-2). 오늘날 교회는 성결을 지키기 위해 이런 매

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18). 마귀에 묶여 교회의 성결을 잃은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되신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화 용서의 은혜(마18:21-35)찬325장

교회가 가진 용서는 어떠한 합니까? 첫째, 한없는 용서를 실행해야 합니다(21-22). 용서할 줄 모른 육체의 소욕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그 용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27). 값을 수 없는 모든 빛을 주인의 사랑으로 단번에 용서된 것처럼 그리

스도인의 모든 죄, 죄책, 형벌 그리고 사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각 사함 받습니다. 이 사건이 형제용서의 근거이기에 용서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셋째, 용서 없는 곳에 주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32-34). 도리어 교회는 기능을 상실해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한없는 용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중요한 길입니다.

수 창조 원리(마19:1-12)찬287장

시대, 문화, 관습마다 결혼에 관한 창조의 가르침을 본문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분명히 말합니다(4).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 외에 다른 성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원리를 벗어난다는 현대사조는 창조주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5).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질서는 개성을 존

중하고 하나님 중심한 삶을 강조합니다. 부정모양의 성격은 날이 갈수록 쇠약화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인(mercy)과 신(faithfulness)의 성품(마23:23)은 항상 지켜져야 할 사명입니다. 셋째, 둘이 한 몸을 이룬 결혼의 언약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6).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와 그 질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사는 지혜자가 현대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 천국을 누리려면(마19:13-15)찬479장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격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첫째, 어린이 같이 진실한 자가 누립니다. 어린이 이란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가르침이 아니라 어린이의 무사기성과 진실성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마5:3)의 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마5:9)고 선포한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

이 같이 전심으로 받드는 사람이 누립니다(13).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끌려온 것처럼 천국은 전심으로 헌신해 그 나라를 섬기는 종이어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 같이 주께 나오는 자가 누립니다(14). 아이들이 주님께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왔으나 그 대상이 주님에게 복됩니다. 천국은 오직 주님의 아이들만이 사는 곳입니다.

금 재를보다 귀한 주님(마19:16-30)찬353장

영생을 얻기 위한 한 청년의 간구를 통해 영생 얻는 길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첫째, 계명을 지키므로 영생을 얻습니다(16-19). 계명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은 그 계명을 주신 분 앞에 바로 선자가 가진 선물입니다. 둘째, 재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20-21).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허비할 줄 아는 사람

이 영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재물과 쾌락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임을 알 때 이것이 영생 가진 증거입니다. 셋째,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21).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영생이 예수님 자신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가진 자는 길잡이가 아니라 전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생가진 자로서의 확신을 가집니다.

토 가난한 자의 섬김(마20:1-16)찬206장

천국 비유 속에 나타난 섬김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주인의 주권 이 존중되는 섬김입니다(13-14). 포도원의 주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아무도 비난하거나 막을 수 없음이 본 비유에 나타납니다.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그의 주인되실과 우리의 종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자원해 감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7-8). 가장 늦게라도 부름

받은 사실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겸손 일관된 섬김입니다(15). 동시에 그는 처음부터 은혜로 된 것을 알기에 교만한 수가 없고 항상 나같은 죄인을 구해주시고 일거리를 주셨다는 그 마를 때문에 겸손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요란한 이 세상에서 마침내 이 섬김의 도가 이집니다. 이 복된 길을 감시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의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umran, Roman Catholic, and others.



살롬의 교육학(2)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교회 교육! 왜 지금인가?

삼위일체 선생님

왜 교회교육이 올바른 세우려야 하는가? 교회교육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세 가지로 답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교육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가장 뚜렷하게 다가오는 성경구절이 있다. 마태복음 26:55 후반절,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셋째로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잠으러 온 군사들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다.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14:26). 결국 성령님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진리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 이신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이신 예수님, 선생님이신 성령님! 그렇다. 주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셨던 가르침의 사역! 교회에서도 이 사역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양육되어 온 아이들이 곧 장성해서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몇 년 전부터 기독교교육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니 곧 4-14윈도우(Window)라는 개념이다.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곧 아이들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미래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핵심 사역이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은 다음세대의 영적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중시해야 할 기성세대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성경은 기존세대가 후세를 위하여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편 78:4을 읽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는 다음세대를 세상문화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사역이다.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기독교교육은 점점 나약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이들 가진 부모 10명중 9명은 교회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는 걸로 나타났다. 13살 된 아이들의 4분의 3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미국 아이들 중에 13살 이전에 거듭난 신앙을 가졌다고 응답한 아이들은 단지 5%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왜 그런가? "Already Gone"을 저술한 켄 햄(Ken Hamm) 박사 에 의하면 교회교육은 아이들에게 주일 성경공부시간에 윤리/도덕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진리를 아이들에게 경험해주고 체험해 주는 교육이 아니고 기껏해야 "하리" 혹은 "하지 말리"는 경고와 훈육에 강조를 두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맞는 이야기이다. 교회가 말로는 차세대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결여된 채 막연한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탑(Top) 리더의 확실한 교육정책이 없이 교회 내 교육부가 성인사역의 보조기능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교육부 담당 사역자도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잠시 스쳐가는 중간사역자대인 경우가 허다하다.

다. Courage to teach라는 베스트셀러를 지은 저자 파커 팔머(Parker Palmer)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교사들의 내적 정체성과 자기 성실성에 있다고 보았다. 결국 교회학교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능력 있는, 성실한 교사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유능한 교사의 자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어느나하는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교사들의 내적 성향(Disposition)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가 가르치는 한 대학의 교사교육학과에서는 향후 공교육 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은 성향검사(Disposition evaluation)에 통과하지 못하면 교사가 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예전에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이었는데 요즘은 이러한 교사의 내적 성향(예를 들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인격적, 도덕적 소양이 있는가 등등)이 더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다. 세상교육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영적교육을 담당할 교회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다.

교육의 4가지 원칙

그라서 교회교육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단 말인가? 필자가 예전에 교육부에 부임하면서 교회교육이 지향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이를 교회 교사들에게 교

셋째 원칙은 교회교육을 기뻐하는 아이들(Joyful Learner)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행복해 하도록 해야 한다. 주일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모들이 강제로 끌어오는 아이들은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 바빠서, 학교공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이유 말고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은 대표적인 예수님 지상사역... 어릴 때부터 신앙 갖고 영적 성장 발전해야 교회교육 GCJC원칙: ▪목표 재정립 ▪수준높은 교사 ▪즐거운 학습 ▪변화창출



육시킨 적이 있다. 이 네 가지를 GCJC원칙이라 불렀는데 4가지 단어의 첫 글자를 각각 언급한 것이다.

첫째 원칙은 교회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Goal Clarification).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교회학교가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이들을 바누는 차일드케어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어른들 예배장소와 아이들의 교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되고 서로 관여하지 않는 편이다. 부모들은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이들이 잘 케어되면 아이들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안도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한, 교회학교의 주된 목표는 아이들의 영적 교육과 성숙을 책임지는데 있다. 교회학교는 또 다른 데이케어 센터가 아닌 아이들에게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기관이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해 주어야 하는 예배장소로 일차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20-30년 전만해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문화나 프로그램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온갖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문화활동, 이벤트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마당에 아이들이 교회에 올 동력이 생기기 못하는 것이다. 기껏 교회 오면 30분 찬양, 30분 설교, 30분 성경공부라는 지극히 변함없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기대하겠는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 아이들이 기쁘게 교회에 와서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을 한가한 사람들의 사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만에! 교육은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강력한 방법이다.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은 정말 가장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시라고! 그랬기에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선생님(didaskalos)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사복음서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48번 나오게 되는데 이중 42번을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그리고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선생님이로 기억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실낙원을 지은 존 밀턴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창세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주 관심사였다고 주장한다. 또 타락이후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치유가 있으니 하나님 안에 돌아오라고 계속 가르치고 계신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하나님은 선생님이다. 성령님 역시 선생님이오 오셨다.

주님은 공생애시절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바나리서치그룹 2001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 크리스천들 1000명을 대상으로 '언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가?'라는 질문에서 5살-13살 때였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32%), 4%가 14살-18살, 그리고 6%가 19세 이후에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인터내셔널바이블소사이어티 조사에 의하면 83%의 크리스천들이 4-14살 때 주님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나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4-1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 대부분(61%)은 성인이 되어도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어릴 때(구체적으로 말하면 4살부터 14살 시기에) 성경을 잘 가르치면 그 효과가 평생을 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더

다. 세상교육은 아이들의 시간을 점점 더 빼앗아가고 있다. 학교교육시간도 부족하여 방과후 교육, 계절학기 교육, 주말학교(Weekend school) 등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을 묶어놓고 있다. 또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온갖 사악한 콘텐츠로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고 아직 자기 정체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이라는 미명아래 반 기독교적 문화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교회교육은 점점 더 아이들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점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미국 LA지역의 교회들을 자체 조사한 결과 수요일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매년 10% 정도 참석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둘째, 이를 위하여 유능한 교사들이 모집되고 임명되어야 한다(Competent Teacher). 수준 높은 교사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학습의 결과를 창출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교사이다. Teaching with style이라는 기독교교육 워크샵 시리즈를 출간한 브루스 윌킨슨(Bruce Wilkinson) 박사에 의하면 차이를 만들어 내는 교육의 결과는 결국 교사가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스타일이라고 강조하고 있

그라서 마지막 원칙인 교회학교를 통하여 변화가 창출되어야 한다(Change Agent). 이전에는 교회 변화의 결과가 교회학교였지만 이제는 교회학교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들의 영적 도전을 주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어야 한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럴 때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는 것이다.

hlee0414@gmail.com (계속)



IMM(International Music Mission)은 25년간 찬양선교로 다양한 사역을 해 온 선교 단체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합창단 CCC(California Children's Chorale)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연주 뿐 아니라 IMM Studio에서 찬양 CD를 제작하며, 교도소와 선교지에 이를 전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 할 것입니다.

IMM' CCC 어린이 합창단 단원모집 오디션 California children's chorale



단장 Rev. Sam Do Kim (김삼도 목사)



지휘 Mr. Won Jae Kim (김원재 집사)

- * 8월 13일 (토)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K-3학년 1:00pm
- 4-6학년 1:30pm
- 7-9학년 2:30pm
- 10-12학년 3:30pm

* 찬송가 or CCM 1절 (한/영 중 1 선택)
* 당일, 합창단 반주자가 무료로 봉사합니다 (약보 1장 카피해 오세요)

* 장소: IMM Studio 2341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 문의: 임보희 사모 (909-610-5431)



반주 Mrs. Bo Hee Lim (임보희 사모)



PTA 회계 Mrs. Jin Young Lee (이진영 집사)



Worship Dance Mrs. Mun mi Son (손문미 교수)



PTA 임사회장 Mrs. Sun Hee Chung (정선희 집사)



Secretary Ms. Sharon Park (샤론 박 자매)



Student Spiritual leader Mr. Vincent Huang (빈센트 후양)

웹사이트 : www.immcenter.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hee43/